

월간 가든인 2월호

February 2015

Gardenin

특집
기사

“봄”에 만날 수 있는 “정원용 종자”



Gardenin Maintenance

나뭇잎과 어린 줄의 모습을 만나다
정원사의 2월 정원관리
여고생의 정원문화 생태학기 연재 2
가축치기의 Tip, 시비



Gardenin Plants

정원의 색상 - 실버플의 정원
정원 속 보이네
우리정원에 아름다움을 담다
장미기하학의 정원용 야생화소재



Gardenin Culture

사천전원지대 정원리모델링
RHS 햄튼코트 팜하우스 플라워쇼 준비현장을 가다
말고 깨끗한 담양의 소쇄원
달걀 판과 달걀 껍질로 만드는 DIY 벽걸이 가든



Gardenin Information

해외 10대 Garden web site 소개와 가든교육안내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모뉴먼트®

syngenta

- 다양한 잡초에 적용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락스 난방제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잡초 발생 초기 뿐만 아니라 발생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약효가 탁월하며, 약효 지속기간이 길다.
- 잔디(한국잔디)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대상잡초 : 한국잔디

무로상당전화: 080-900-1114 | 상담전화 1588-3889

신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 사용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 손이 닿는 곳은 봉인하거나 보관하십시오 ● 잔디사용후 잔디를 잘 치기 후 수확물을 섭취하십시오

Gardenin

Gardenin 월간 2월호

CONTENTS

Gardenin Maintenance

- 4 2월 겨울정원의 산책
- 6 Gardenin 정원사의 2월 정원관리
- 10 여고생의 정원문화 생태일기 연재 2
생태환경 생활반 동아리의 정원문화 속 이야기들과 식물로 사랑을 말한다.
- 16 정원사의 일기
2월 파종준비와 달빛 설계 계획
- 20 가치치기의 Tip, 시기
가치치기의 올바른 방법과 나무들의 자라는 계절 정보

Gardenin Pl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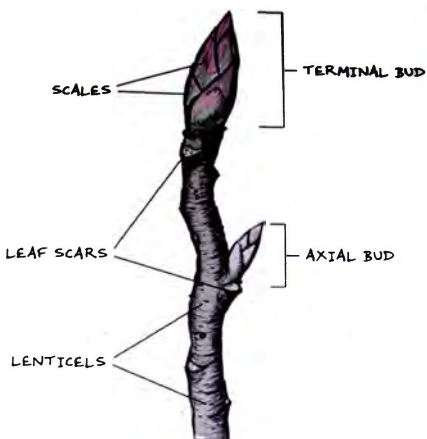
- 22 정원의 색상 - 실버톤의 정원
- 26 정원 속 보이네
- 30 아름다운 식물들 소개
- 34 특집기사/ 우리정원에 아름다움을 담다
아름다운 식물 100선을 정원에 선보이며 식물의 다양한 색상과 종과 특징을 소개한다
- 42 장기개화의 정원용 야생화소개
해외에서 각광 받는 최고의 장기형 품종을 2015년 봄에 소개
- 47 이제 정원에 관목이 물려옵니다 "정원용 관목
- 50 헬리오트로프

Gardeni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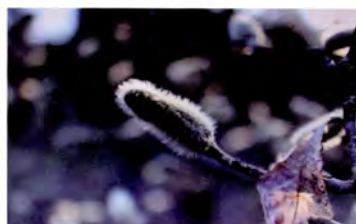
- 52 천혜의 경관 융합된 정원공간으로 리모델링
- 58 모나코의 정원
- 61 맑고 깨끗한 담양의 소재원
- 64 RHS 햄트코트 팔라스 플라워쇼 준비현장을 가다
- 67 다양한 문화의 나눔이 잇는 '꽃마루' 김영재의 정원
- 72 가장 자연스러운 이름을 가진 야생화
- 74 주목
- 77 달걀 판과 달걀 껍질로 만드는 DIY 벽걸이 가드닝

Gardenin Information

- 79 Garden & Book
- 80 세계 Best 10 의 해외정원 방문지 소개



맨끝 봉우리 terminal bud - 포엽 Scales
 밑아 봉우리 axial bud - 잎의 흔적, 자국 leaf scars,
 Lenticels 피목



2월 겨울정원의 산책

앞은 없지만,
 나무의 향과 어린눈의 모습으로 만나다.

겨울정원은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횡행 불고, 정원은 거의 죽은 시간이 가듯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줄어가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봄을 품은 자만이 즐기는 겨울 봉우리의 아름다운 자태를 카메라로 옮겨본다.

겨울 나무는 각기 다른 형태의 겨울눈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 시간이 사실상 나무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유용하며 나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매우 즐거운 시간이라 추위도 잊고 계속 적어가며 관찰도 달아주고 사진도 찍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정원 속에 숨어있는지 겨울 나무의 이름 맞추기도 재미 있는 겨울 정원을 산책하는 아들에게 귀한 시간임을 알려려고 한다.

각기 다른 형태의 겨울눈

- 솜털로 덮여 있는 경우 : 백목련, 쪽동백
- 비닐 잎으로 싸있는 경우 : 벚나무, 참나무 종류
- 끈적한 진액으로 덮은 경우 : 칠엽수, 버드나무 종류
- 가죽처럼 단단한 껍질로 덮은 경우 : 물푸레나무
- 수피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통기구멍(피목) : 은사시나무 등등 과 단모, 복모, 선모로 어린 눈 주변의 털과 돌기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아, 동아, 측아, 액아, 부아, 부정아, 잠아, 나아, 인아, 가정아, 병아, 혼아 등등의 이름은 줄기끝에 붙은 어린 구조들로 각각의 특성들이 월동을 하며 봄을 위해 준비하는 꽃, 눈의 설명을 의미하는 말들이다.

겨울 정원을 거닐며 나무에도 관심을 가지며, 이제 봄을 맞아 숲을 방문하거나 산행하는 동안 나무마다 우리에게 알리는 정보가 가득하다. 정보에 익숙하다 보면 각각의 나무에서도 친구를 알아가듯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며 정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겨울 정원을 거닐으며, 떨어진 표찰도 다시 정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지도록 알리는 정보도 필요하다.

겨울나무는 잎도 없는데 정원에서 무슨 구경을 하나고 질문 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곳 저곳에서 짙은 나무향도 맡으며, 가만히 살피니 아름다운 구경할 것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는 정원사 모두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는 2월의 정원입니다. 사진으로 함께 감상하며 나무의 identity를 시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린 겨울눈은 가장 바깥에 아주 단단한 껍질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 봄의 시간을 위한 단단하고 나무들의 수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때도 이즈음이다.

<참조 사이트>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index.do>

숲 드림 <http://kofpi.tistory.com/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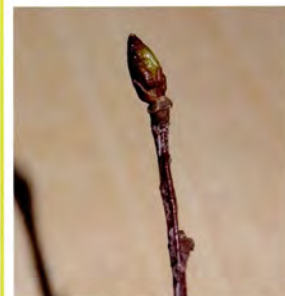
단풍나무 *Acer pseudoplatanus*



개암나무 *Corylus avellana*, Hazel



소사나무 *Corpinus betulus*





가든인 정원사의 2월 정원관리

정원사의 정원관리 업무리스트

No.	리스트	겨울		
		12	1	2
01	화단관리			
02	정원 디자인 관리			
03	정원 도구 수리·유지·보수			
04	온실 비닐하우스 관리			
05	조경 경관 디자인			
06	동절기 정원 관리 준비			
07	식물영양 표찰 작업			
08	식재 선정 작업			
09	관수 시설 설치 및 유지			
10	관수 공급			
11	충돌 관리 감독 (정원관리피드백)			
12	파종 시기 리스트 작업			
13	월동준비			

이달의 정원 관리 작업 리스트

1. 토양 테스트 및 파종리스트 준비
2. 정원의 나무, 풀, 파종 채소, 식물들의 표찰을 미리 준비하여 둔다.
3. 살구(Apricot), 천도 복숭아(Nectarine)와 복숭아(Peach)의 개화의 보호를 점검
4. 새 등의 야생동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을칩니다.
5. 겨울에 꽃이 피고 진 관목의 가지치기 및 정원관리
6. 갈란투스(Snowdrop)같은 구근류는 땅이 녹은 후 나누어 심는다.
7. 덩굴식물 등의 등나무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8. 내한성 상록수 화망목의 가지치기 준비와 성장이 빠른 낙엽성 화망목의 보수 관리 점검.
9. 온실 속 덩굴식물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10. 겨울기간 동안 관수나 배수 관계를 점검하며, 곰팡이 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한다.

정원가구기 업무과정



토양관리와 구근심기

겨울 동안 묵혀 놓았거나 올해에 새로 산 구근은 생육을 시작 할 수 있으며, 심기 전 썩이 트기 위해서 빛이 많고 따뜻한 곳에 놓고,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추가로 해 주어야 합니다. 바위 정원이나 화단 정원에서 솟아난 구근은 눈 비로 부터 자연히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동해 방지로 덮어 보호 할 수 도 있습니다. 내한성 일년생 식물은 화분에서 자신만의 색상을 표출 할 수 있으며, 여름에 개화하는 네덜란드 아이리스(Iris)는 꺾꽂이 꽃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글라디올러스(Gladiolus) 구근을 빛이 많고 약 10°C 정도로 따뜻한 파종상이나 박스에 놓아서 심기 전에 썩이 빨리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Papaver), 비베스쿰(Verbascum), 아칸서스(Acanthus)와 플로록스(Phlox)의 뿌리꽃이를 할 수 있으며, 비 내한성식물의 보호체나 장비가 겨울내 야외에서 제대로 식물을 보호하고 있는지 재확인 필수.

» 일반 관리

흙의 pH농도와 영양함유량을 조사하며, 이는 정원에 심을 올바른 식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봄에 필요한 영양공급을 함으로 영양 결핍을 바로잡을 수 있다.

흙 덮기를 하기 전 잡초가 무성한 화단을 깨끗이 하고, 가벼운 흙은 지금 덮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무거운 흙은 3월까지 흙이 더 따뜻하게 될 때까지 남겨 놓습니다. 아래쪽에 유기물과 함께 흙덮기를 하면 흙의 상태를 좋게 하며, 잡초의 성장을 줄이며, 온도 변화로부터 뿌리를 보호 할 수 있으며, 여름기간 동안 축축한 흙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마 밑에나 발코니에 두어서 물레 비를 맞은 화분에 물을 더 주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며, 손 깊이 안쪽의 퇴비를 만져봐서 축축한지를 확인을 해서 너무 젖어 있지 않는지 알아 봅니다.

» 토양 pH 측정기

토양측정기

용도 : 토양의 산도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구 일이다.

규격 : 제품 크기 : 가로 16.5cm , 눈금판 부분 지름 약 5cm

특징 : 약품등 소모품이 일체 필요없고, 측정은 토양에 삽입하기만 해도 바로 측정이 가능하며, 석회의 사용량이 즉시 판명·소형이고 견고하며 휴대가 편리

(사용방법)

1. 지침이 pH7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
2. 마른 수건으로 전극의 표면을 잘 닦아 먼지나 찌꺼기 등을 닦아 줍니다.
3.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을 없애기 위해 토양에 2~3회 삽입 후 사용
4. 삽입 후 일1분 정도 경과하면 바늘이 안정됩니다. 바늘 끝 지침이 pH값이며, 토양의 양면의 기구의 단면에 밀착되지 않으면 바늘이 좌우로 흔들리므로 고정시켜 주십시오
5. 습도의 측정때는 측정기를 토양에 삽입하여 옆의 버튼을 누르면 수분이 측정됩니다.
6. 수분이 50~70% 정도이면 토양 pH측정에 알맞으며, 토양 중에 비료가 많으면 습도가 100%를 넘으므로 이 경우에는 물을 뿌려 비료를 유실시켜 습도를 50~70%로 만든 다음 측정한다.



미링센터(02.585.5346),
조이가든 쇼핑몰(www.joygarden.co.kr)

그루다듬기, 가지치기 그리고 뿌리나누기



겨울을 지낸 낙엽성 장식용 캐스케이드 역새(Miscanthus sinensis 'Kaskade') 등의 잔디류나 기타 다년생 식물의 포기나누기 합니다. 겨울 화단의 팬지꽃(Pensy)과 겨울화초 등의 시든 꽃을 잘라내기를 계속 해서 해 줍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팬지꽃은 봄 또는 이른 여름까지 계속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월 말미에 실내 화분에서 자란 바늘꽃(Fuchsia)의 줄기를 가지치기 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채광이 좋고 따뜻한 곳에 옮긴다. 갈란투스(Snowdrop), 노랑너도바람꽃(Eranthis hyemalis) 등 온실 구근류의 뿌리나누기를 준비한다. 번식을 시키려고 하거나, 너무 자라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꽃의 개화수가 적거나, 원래의 모양을 유지 못하는 다년생 초본의 덩굴을 나눠 심기를 합니다.



해충과 질병 검사

봄에 꽃이 피는 고산식물 위에 모래나 자갈을 깔아서 줄기가 썩는 것을 방지 합니다. 범의귀(Saxifrage) 같은 고산식물 주변의 죽은 잎사귀를 치워 부패를 막아주고, 갈란투스(Snowdrop)는 회색곰팡이(Grey mould)에 약하니 주의를 합니다. 노균병과 팬지꽃의 검은 반점을 관찰하고 감염된 잎을 없애고 심하게 감염된 식물은 완전히 제거를 하며, 질병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년 팬지꽃을 같은 자리에 심지 않아야 되며, 최근에 심은 다년생 꽃에 부패현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헬레보레(Hellebore) 나뭇잎의 반점은 오래된 헬레보레에서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잎을 잘라서 꽃과 새로운 잎이 잘 보일 수 있게 합니다. 진딧물은 스위트피 바이러스를 전파 할 수 있으므로 진딧물로부터 스위트피를 보호해야 하며, 백합(Lily), 참제비고깔(Delphinium), 비비추(Hosta) 등의 썩이 나오기 전에 지렁이와 달팽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미리 준비해보기

봄에 심어 여름에 꽃이 피는 구근, 화단용 화초와 다년생 초본을 주문하고, 막대기와 끈을 다음 계절을 위해 준비해 놓습니다. 여름에 사용할 깔개와 박스를 미리 준비하고, 구근과 일년생 화초 그리고 종자를 구매 하며, 적절히 번식을 계획 하기에 좋은 시간 일입니다.

수목과 관목

» 일반 관리

나무 보호용 기둥이나 끈을 확인 하고, 필요한 곳에 꼭 조이거나 풀러 줍니다. 침엽수의 가지가 눈의 무게와 강한 바람에 의해서 벌어져 훼손이 될 것 같으면 잘 묶어서 고정 시켜 줍니다. 동결이나 강한 바람에 의해 새로 심은 수목과 관목의 뿌리가 들리면, 땅을 단단히 다져 줍니다. 수목, 관목 그리고 덩굴식물에 씌운 보호용 커버를 동결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확인 하고 잘 보호가 되게 해 줍니다.



가지치기의 주의점과 실습

여름 전에 가지치기를 하면, 낙엽성의 꽃이 피는 장식 채리(Ornamental Cherries), 자두(Plums), 아몬드(Almonds) 같은 벚나무(Prunus)종들은 온피 병에 약해지며, 만약 완전히 성장한 크기보다 여유로운 공간에 심으면, 주기적인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지치기를 할 때, 중심부가 개방이 되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 질병과 병충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낙엽성의 관목은 2월과 3월 사이에 가지치기를 하며, 봄에 꽃이 피는 관목의 가지치기는 꽃이 핀 후 바로 실시해야 한다. 악비 내한성 상록수 관목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며 잘 고정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백버들(Salix alba)과 서양층층나무(Cornus sanguinea) 같은 관목은 그루다듬기를 자주하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크기로 유지시켜 주고 줄기 색깔이 진해질 수 있게 합니다. 내한성 열목무늬 상록수에서 반대로 자라는 새순을 잘라내서 반대방향으로 자라는 것을 방지하며, 로제트 식물의 상단 줄기 잎을 잘라서 가지가 잘 퍼져 하며, 낙엽성 화양목의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잎의 돌출을 보수합니다. 장식용 포도(Ornamental vines), 아이비(Ivy), 아메리카 담쟁이덩굴(Virginia creeper) 등은 3월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등나무(Wisteria)의 가지치기를 할 때, 옆으로 자라는 줄기를 2-3마디 정도만 남게 짧게 하며, 꽃 싹은 남겨 놓습니다. 늦은 여름과 가을에 꽃을 피우는 클레마티스(Clematis)의 하단의 강한 한 쌍의 줄기를 잘라내며, 영양분을 주고 부리 달개로 덮어 줍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재스민(Jasmine)은 꽃이 사라지면 가지치기하며, . 죽거나 훼손된 싹을 잘라내고 새로 난 줄기를 몸통에 묶어주며, 몸통에서 옆으로 나온 싹을 5cm정도로 잘라 주면, 깔끔하게 하고 다음 겨울의 개화를 향상시킵니다.

번식

가을에 거두어들여 저온에서 저장한 수목 씨앗을 점검하여 3월 파종준비를 한다. 층층나무(Cornus), 버드나무(Salix), 개나리(Forsythia), 병꽃나무(Weigela), 범의귀(Escallonia), 까치밥나무(Ribes), 모과(Chaenomeles) 그리고 보리수(Elaeagnus) 같은 장식용 관목의 속자삼(꼭짓)을 준비하여 땅이 해동되면 심도록 합니다. 덩굴식물인 인동덩굴(Lonicera) 담쟁이 덩굴도 같은 방법으로 증식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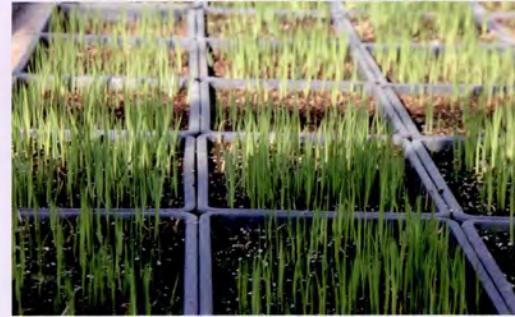
해충과 질병 검사

화양목과 감탕나무(Holly tree)를 점검해서 증상을 파악 합니다. 진나비결상(Bracket fungus) 나무줄기 주변에 선반모양으로 겹쳐나는 육질(肉質)·목질(木質)의 담자균, 원쪽사(전)류가 나무에 더 잘 보이는 시기이며, 나무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식물의 역병(Phytophthora root rot)은 성년 수목과 관목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습한 겨울 기후와 배수가 잘 안 되는 흙에서 민감한 나무 류의 식물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 혹(Coral spot 또는 Canker)은 종종 낙엽성의 화양목, 관목 그리고 수목에서 발견되며, 이 문제는 가지에 통풍이 잘 안되거나, 묻혀있거나, 잔가지의 가지치기를 안 했거나, 화양목 내부 가지가 부러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잔디

» 일반 관리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로 잔디를 깎아야 하며, 봄이 오면 잔디 색이 나기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 잔디 높이는 가장 높게 해서 깎아줘야 한다. 새 잔디를 깎 수 있으며, 너무 축축하거나 서리 입은 흙을 깎면 안됩니다. 날번지를 놓고 작업을 해서 흙이 단단해 지는 것을 방지 하고, 새로 깎 잔디 위에서 걷지 않고 몇 주만 걷드리지 않고 그냥 놔두어서 뿌리가 고정될 수 있게 합니다. 새 잔디에 부릴 파종상을 준비하고 습하지 않은 날의 봄에 씨를 부릴 수 있게 합니다.



문제해결

이끼를 계속해서 관찰 해야 하며, 이는 2월에 이끼의 활동이 증가하며 증식 및 오새와 보금자리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 입니다. 늦게 돌출된 부분을 평평하고 단단히 다져서 봄에 잔디 씨를 다시 부릴 수 있게 합니다.

애벌레의 출현은 올해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 주며, 붉은곰팡이(Fusarium patch) 또는 눈곰팡이(Snow mould) 그리고 조류(Algae)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봄의 정원 이끼 / 애벌레 제거 효과 - 메달리온

잔디에서 이끼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끼/애벌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잔디에서 이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과 양호한 환경조건(습하지 않는 환경)의 조성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배토 또는 갱신작업) 줄일 수 있습니다. 신젠타의 메달리온 제품은 잔디용 살균제로써, 라이족토니아 마름병, 동전 마름병등을 예방 방지 할 수 있으며, 조류발생 초기 처리시 조류 방제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애벌레를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는 플레그립을 추천하며, 입상 수화제 형태의 제형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저독성, 냄새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실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곰팡이 뿐만 아니라 진딧물, 깍지벌레등 흡충성 해충방제에 큰 효과를 볼수있다.



syngenta 산젠타 코리아(주)
www.syngenta.co.kr



스티제라 영양제

탁월한 영양 훌륭한 결과
탁월한 결과를 위한 영양분
더 높은 수확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

봄의 개화 활착 & 성장
균형잡힌 식물 영양분
경엽처리, 관주처리 가능

성분

스티제라는 동물성 콜라겐을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 생성한, 유리아미노산과 크고 작은 펩타이드로 구성된 유기질 복합체입니다.

(유리아미노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유기 질소분, 염모나이트 질소, 질소, 유기탄소, 회분, 수분)

기능

저온, 물부족 또는 과염류에 의한 스트레스부터 안정화 저장 조직의 생성으로 세포벽 강화, 화분 수정을 향상. 뿌리, 줄기, 잎 그리고 꽃의 생장 촉진. 질소를 보관하는 천연 저수지와 같은 역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

장점

작물에 쉽게 흡수되는 영양소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적은 에너지를 소모
아미노산을 공급해 줄로 염록소의 합성이 용이
영양생장을 촉진, 밝은 촉진시키는 오옥신을 생성
강력하고 조화롭게 뿌리와 줄기, 잎을 발달



발렌타인 데이

여고생의 눈에 비치는 사랑의 언어

수도 여고 생태환경 생활반 학생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정원문화가 식물의 잎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옆의 정원은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Giardino Giusti Garden, Verona, Italy.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에서 들려주는 'A time for us'의 음악은 모두가 순수한 사랑을 전달하는 운율과도 같은 음악. 사춘기의 순수한 사랑의 스토리로 아직도 고전에 가까운 사랑 이야기이다. 해마다 2월이면 발렌타인데이를 맞으며 세속적으로 상업화하고 있지만,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여고생의 눈에는 아직도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얻을 수 있어 사진을 받으며 미소가 지어진다. 발렌타인데이 여고생들은 정원 속에서 식물이 사랑을 말하는 언어를 사진으로 보여준다. 사진을 감상하며 이제 봄부터 피어나는 식물 속에서 각자의 사랑을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다. 꽃이 아름답다지만 정원에서 꽃이 개화를 계속 할 수는 없으며, 피고 지는 자연의 법칙은 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순간만 느끼도록 만든 창조주의 신비로움 일지도 모른다. 정원디자인 관련된 책을 읽으며 가장 최고의 정원 디자인서는 "정원에서 'Green leaf'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즐긴다면 최고의 정원사이다"라고 자연이 전하는 녹색의 환희를 즐기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이제 학생들이 찾아낸 사랑의 모습을 보며, 옛 추억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맛보자. 정원이 아니라면 정화되는 시간도 찾지 못할 일들을 순수한 여고생들의 사랑 Heart 앞에서 마음을 다스려본다. 그리고 정원을 산책하며 사랑의 표현도 찾아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건네어 보자. 정원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 가장 큰 마음을 즐기는 곳이고 걷고 또 걸으며 기쁨을 창출하는 공간이다.

Giardino Giusti Garden, 이태리



괘이밥 *Oxalis corniculata* Creeping Wood Sorrel
사랑(heart)이 세가지 모여 세금의 사랑을 전하는 흔한 풀 괘이밥의 잎에서.



박주가리 *Metaplexis japonica*
박주가리의 사랑Heart는 두 사람이 마주 본듯 사랑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이려는 모습



육점화잎 *Hosta*



육점의 커다란 잎이 큰 사랑을 모두에게 녹색으로 나누려는 듯 시원한 사랑을 전한다.



깨풀 *Mosla punctulata* *Acalypha australis* L.
들깨풀의 heart 모양은 아주 깨알스러운 사랑인듯 뽕뽕한 것이 사춘기의 사랑을 말하는 듯 하다.



당의장풀 *Commelina communis*
이런 사랑 어렵고 힘들게 기다리며 사랑을 보려고 기다리는 시간을 배웁니다.



물상추꽃 *Pistia stratiotes* L.
물 상추꽃. 아주 작고 귀한 사랑, heart의 표현은 귀한 듯 여린 솜털로 둘러싸여 보살핌이 필요한 사랑



종지나뭇잎의 사랑은 맨저 가장자리 툇나기 힘겹게 사랑을 말하는 모습

특집기사 2. 수도여고 정원의
생태일지 관찰주제

식물에 관한 질병

수도여고
생태일지 관찰주제



잘못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생긴 무궁화나무에서 난 단풍나무

주제선정 이유: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나무와 꽃이 많습니다. 특히 백합 동산과 중앙정원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로 눈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식물의 수와 종류가 많은 만큼 식물에 생기는 해충과 질병들도 많습니다. 그 수가 적당하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지나치면 식물에게 피해가 갑니다. 저는 저희 학교 식물에 어떠한 질병들이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식물에 있는 질병에 대해 관찰하였습니다.

관찰 내용 난황유 만들기 / 잎말이 벌레 / 그늘음 병 / 방패벌레 / 상열 등

천연살충제- 난황유 만들기 (6월 1일, 미술실)



준비물 물20L, 식용유 60g, 계란노른자 1개, 막서, 계량 컵

만드는 방법



1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한다.



2 식용유와 계란노른자를 섞는다.



3 2번을 물 20L에 넣는다.



4 막서로 잘 섞어준다.

(6월 1일, 백합동산, 연못 주변)



난황유를 만든 다음 분무기에 담아 학교 정원에 있는 식물들 중 해충의 피해가 심한 식물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화학살충제를 사용하면 해충을 박멸하기 훨씬 더 쉽겠지만 해충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운 생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토양이 오염되어 식물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천연 살충제는 우리에게도 해롭지 않은 식물들을 이용해 더욱 환경친화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난황유는 병원균 대사 작용 및 바이러스 침입을 억제하고 원형질을 파괴하여 흰가루병, 누로병, 점박이응애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잎말이벌레 (6월 26일 날씨: 구름, 백합동산 야생화 꽃밭)



잎말이벌레는 식물의 열매나 잎을 돌돌 말아서 그 속에서 나뭇잎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나뭇잎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잎말이벌레는 식물의 열매나 잎을 돌돌 말아서 그 속에서 나뭇잎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나뭇잎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잎말이벌레도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식물에게 피해가 간다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여 없애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물의 피해가 심하다고 생각할 때 잎말이벌레를 수를 조정하여 식물과 잎말이벌레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늘음병 (7월 19일 날씨: 구름, 중앙정원 산수유나무)



그늘음병은 외관이 검은 그늘음을 발라 놓은 것 같이 변하는 현상으로 대부분 진딧물, 깍지벌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늘음 병에 걸리면 말라 죽지는 않으나 광합성을 못해 식물이 많이 쇠약해 집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늘음병이 중앙정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런 곤충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방이 건물로 둘러 쌓인 중앙정원의 건물 구조 상 뜨거운 열기와 통풍이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물을 뿌려서 중앙정원의 온도를 낮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패벌레 (8월 7일 구름, 중앙 정원 아스타 꽃)

중앙정원에서 방패벌레의 피해로 보이는 잎이 발견되었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였고 곤충의 배설물로 보이는 검은색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아스타가 심겨진 장소에 검은물이 있어서 뜨거운 여름 복사열 때문에 식물이 많이 약해져서 방패벌레에게 많이 먹힌 것 같다.

방패벌레는 3.5-4mm로 머리는 갈색이고 흑갈색의 몸이 반투명한 날개가 있는 벌레입니다. 방패벌레는 식물의 잎 뒷면에 살면서 수액을 빨아먹어 염록소가 파괴되고 잎의 색이 갈색으로 타색됩니다. 더 확산되기 전에 방패벌레의 수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9일 맑음, 매점 옆 방통교무실 옆 바깥 창틀



매점과 연결된 곳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발견하였다. 유난히 햇빛이 뜨거웠던 날 식물들이 태양열 때로 말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교무실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나무에 햇빛을 쏘아려고 밖으로 내놓았다가 잊어버리신 것 같다. 교무실에 계시는 선생님께 빨리 다시 안에 갖다 놓으시라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식물 역시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물이 부족하여 잎이 마른 것 같습니다. 식물들이 여름마다 뜨거운 태양열에 물 부족으로 마른다면 학교 식물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 입니다.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8월 20일 맑음, 백합동산)



학교 백합동산에 있는 마로니에 나무 6그루에서 모두 상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열이란 겨울철 수간이 동결하는 과정에서 바깥쪽의 변재 부위가 안쪽에 단열되어 있는 심재 부위보다 더 심하게 수축함으로써 수직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과화시간에 나오는 열팽창과 열수축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상열은 낮에 햇빛에 의해 나무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남서쪽 구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햇빛에 많이 노출된 마로니에 나무 2그루에는 상열이 더욱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마로니에 나무들 옆에 있던 참나무들은 상열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로니에 나무들이 낮에 더욱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간을 마대로 써거나 나무에 흰 페인트를 발라주면 됩니다.



수직 정원의 왕자 타잔

숲에서 태어난 타잔의 선물,
이제 여러분께 바칩니다.



수직정원 이제 너무 간편합니다. 타잔이 끝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수직정원

가정용 **타잔**

출시기념 특가판매

출시기념 특가

3 × 3구(400mm x 400mm)구성

홀더 9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40,000원~~ 20,000원

3 × 6구(400mm x 800mm)구성

홀더 18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70,000원~~ 35,000원

6 × 6 구(800mm x 800mm)구성

홀더 36개, 철망, 상토, 홀더 망, 고정나사

~~120,000원~~ 60,000원

위의 모든 제품은 배송비 및 부가세 별도 상품입니다.

기본사항입니다.

선택사양은 문의 후 추가구매

가정에서는 소량 구매 시 식물을 제외한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약 넣고 많은 수량을 할 때는 자동관수

등의 추가 선택하시면 관리에

매우 편리 합니다.

50%
D.C



자! 준비 되었나?
슬~슬~ 시작 해 볼까?

핸드드라이버를 이용
박고! 박고! 박고!

준비된 타잔이 줄타기 하듯
노래를 부른다

아~아~아~아~
걸어만 주면, 끝~

타잔의 효율적인 구성

기본

- 언제 어디서나 걸어만 주면 되는 홀더
- 타잔의 노래를 부르듯 줄타기(디자인) 하는 철망 (철망을 부착할 수 있는 나사 및 토양 포함)

선 택(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른 선택사항)

- 실내 수직정원을 가능케 하는 식물, 주로 관엽식물(선택)
- 물을 간단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수 호스(선택)
- 물을 시간에 맞게 자동 공급하는 아쿠아프로(선택)
- 실내용 물받이(선택)
- 실내용 물통(선택)
- 실내용 관수펌프(선택)
- 실내용 마감재(선택)



아름다운 수직정원
타잔을 부르는 소리

타잔! 밀림의 왕자!
이제 간편한 수직정원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꽃 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관상정원(Ornamental Garden)

겨울정원을 식각하지 않게 하는 건 상록수 일 것입니다. 잎이 넓은 상록활엽수도 있고 잎이 좁은 상록침엽수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는 상록수는 대부분 상록침엽수이고 이런 상록수를 침엽수라고 부릅니다.

침엽수는 나자(裸子)식물강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크게 두 가지 아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철아강에는 1과 9속 100여종이 있고 중생대에 주로 분포된 식물군입니다. 두 번째는 구과(毬果)식물아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은행목과 구과목이 있습니다. 구과목은 나자식물강의 주요목으로 동그런 모양의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구과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구과목은 7과 48속 520여 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4과 14속 44여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과목 4과는 주목과, 소나무과, 낙우송과, 측백과입니다.

>> *Abies den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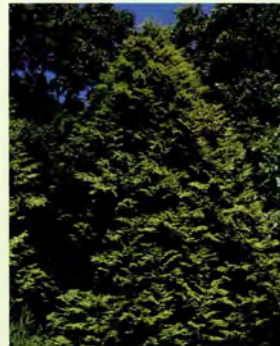
상록침엽교목으로 자라며, 키는 30~60m 정도이다. 원산지는 부탄, 중국, 인도 네덜란드. 솔방울(구과)은 10cm 크기로 색깔은 푸른 회색빛이 난다.

>> *Abies koreana*

상록침엽교목으로 자라며, 키는 20m 정도이다. 원산지는 우리나라이다. 솔방울은 4~6cm 크기로 색깔에 따라 푸른구상(*Abies koreana* for. *chlorocarpa*), 검은구상(*Abies koreana* for. *nigrocarpa*), 붉은구상(*Abies koreana* for. *rubrocarpa*)으로 구별된다.

>> *Chamaecyparis pisifera* 'Boulevard'

상록침엽교목으로 자라며, 수형은 원주형이고 뽕뽕하게 자란다. 키는 2m 이하이다. 잎은 녹색으로 왜성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암석원에 어울리는 침엽수이다. 원종은 북아메리카 서부 가 원산지이다.

>> *Chamaecyparis obtusa* 'Crispifolia'

상록침엽교목으로 더디게 자라는 원주형의 수형을 가지고 있다. 잎은 밝은 노랑색으로 토마스 크립스(Thomas Cripps)에 의해서 선발 육종되었다. 만백의 원예종이다.

>> *Chamaecyparis pisifera* 'Filifera'

상록침엽교목으로 자라며, 수형은 원주형이고 키보다는 수관폭이 넓다. 화백의 원예종이다. 잎이 실처럼 늘어진다.

>> *Elaeagnus pungens* 'Maculata'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라며, 키는 5m 정도이다. 잎의 중앙에 밝은 노랑색이 있다. 원종은 일본이 원산지이다.

>> *Chamaecyparis lawsoniana* 'Minima Aurea'

상록침엽교목으로 왜성으로 더디게 자라는 수형을 가지고 있다. 잎은 밝은 노랑색으로 레드 로지 농장(Red Lodge Nursery)에서 선발 육종되었다. 왜성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암석원에 어울리는 침엽수이다. 원종은 북아메리카 서부와 서북부가 원산지이다.

>> *Euonymus fortunei* 'Blondy 'Interbolwi'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라며, 키는 1m 이하로 자란다. 잎은 중앙에 밝은 노랑색이 있고 가장자리는 짙은 녹색이다. 흰여중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가를 받고 번식해야 한다.

>> *Picea pungens* 'Glauca'

상록침엽교목으로 자라며, 수형은 원모양이고 뽕뽕하게 자란다. 키는 2m 이하이다. 잎은 녹색으로 왜성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암석원에 어울리는 침엽수이다. 원종은 북아메리카 서부 가 원산지이다.

>> *Euonymus fortunei* 'Kewensis'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라며, 키는 1m 이하로 자란다. 잎은 원종에 비해 작고 비록을 가며 자라는 특징이 있다.

>> *Hedera colchica* 'Sulphur Heart'

상록활엽관목으로 자란다. 원산지는 코카서스(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다. 잎은 중앙에 불규칙적인 노랑색이 있는 원예종이다.

텃밭정원(Vegetable Garden)

2월이 되면 텃밭정원을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늦어지게 되면 일에 밀려서 계획없이 이것 저것 하다보면 또 한 해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반복을 막기위해서는 특히 처음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자에게는 텃밭정원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들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처음에 할 때 어렵더라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텃밭정원 설계 및 계획

텃밭정원 준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어디에 텃밭정원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을지 고민하기 전에 텃밭정원을 만들 곳의 환경적인 요건들을 알아봅니다. 텃밭정원의 위치가 정해지면, 새로 만들 텃밭정원에서 아침 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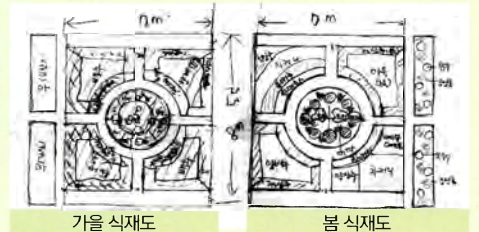
계절에 따라 해의 길이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조량을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발을 벗고 맨발과 맨손으로 흙의 감촉을 피부로 확인한다. 흙은 우리의 몸을 조율하는 좋은 기운을 줍니다. 그리고

흙 중에서도 좋은 흙이라면 자신의 몸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메마르고 뻣뻣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루해의 일조량과 흙이 가진 힘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삼으로 한삼 두삼 퍼 넘기면서 퇴비의 양을 가늠해 봅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중성에 가까운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석회를 넣어 토양산도를 중성으로 조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이 좋으면 주변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보고도 토양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쇠뜨기나 질경이, 쑥, 제비꽃은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고, 큰개불알풀이나 팥대나물은 중성에 가까운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채소를 키우는데 배

울 수 없는 요소인 물. 텃밭정원과 가까운 곳에 수도가 있는지 없으면 빗물을 받아서 쓸 조건은 되는지 혹은 돌레에 작은 연못이나 웅덩이가 있는지 등 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흙, 물, 공기는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소중합니다. 텃밭정원의 위치를 몸으로 익혔으면 총 면적을 차로 재고 종이 위에 머릿속의 도면을 그려 나갑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면 원하는 면적에 얼마만큼의 채소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정원을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1. 기본설계

면적은 가로, 세로 8m로 아담한 공간입니다. 남향이지만 옆에 있는 건물 때문에 아침해가 늦게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잠깐의 아침 시간을 빼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고, 수도도 가까워 물 주기에도 편한 곳입니다. 면적이 그리 넓지 않아 처음 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없고,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 나가듯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실전의 놀이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식재 계획도

채소를 처음 키워 보는 사람이라면 열매채소 보다는 잎채소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채소는 열매채소에 비해 빨리 자라고 수확하는 시기도 빨라 짧게는 한 달 안에 밥상에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잎채소는 먹기에 부담이 됩니다. 4인 가정이라면 서너 종류의 잎채소를 각각 대여섯 개를 심으면 충분합니다. 가운데 부분은 비교적 손이 적게 가는 토마토와 오이 같은 열매채소를 심어 지주를 세워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평평하고 맛있는 것보다는 울퉁감이 생기고, 일부 채소에게는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건물 옆으로 만든 가늘고 긴 두둑에 옥수수를 심어 바람막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강낭콩을 심어 땅 속에 질소를 고정시키고, 옥수수는 그 양분을 빨아 올려 식물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적은 공간에 여러 작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혼식이라고 합니다.



2월에 해야 할 일 고추심종하기



고추심종



다양한 씨앗용기

2월에 해야 할 중요한 일에는 고추와 파프리카, 가지 등 가지와 채소를 침종(浸種)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고추의 침종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가지는 고추처럼 하면 됩니다.

고추침종

- 화장지 또는 면으로 된 천에 물을 적시고 대접이나 용기에 넣은 후, 고추씨를 그 위에 골고루 뿌립니다.
- 고추씨를 뿌린 그릇에 비닐 봉지에 꼭 씌웁니다.
- 집안의 따뜻한 곳에 1주일 정도 두면 싹이 나옵니다.
- 싹이 나온 씨앗을 흙을 담은 작은 화분에 심습니다.



씨앗저장고

대화초는 매우 맛이 강하고 칠성초는 아삭이 고추의 맛이 나고 수비초는 대화초와 칠성초의 중간 맛이 납니다. 대화초, 칠성초, 수비초는 토종고추입니다.

가족의 식성에 맞게 골라서 심을 수 있습니다. 토종고추는 크기는 작지만 병충해에 강한 특징이 있어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기를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추는 씨앗받기에 아주 쉬운 작물입니다. 잘 익은 고추를 1~2개 따서 후숙(後熟)시켰다가 씨앗을 골라내면 됩니다. 고추씨를 적당한 용기에 담아 저장고에 두면 됩니다.

단고추(파프리카) 또한 씨앗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해에는 똑같이 생긴 것을 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맘에 드는 맛과 모양이 예쁜 것을 선택해서 키우면 됩니다.



다양한 파프리카 후숙

정원관리(Garden Maintenance)

도구관리(Tool Maintenance)

겨울은 정원에서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도구(전정가위, 톱 등)를 관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정가위를 다루기로 합니다.

준비도구 : 줄, 사포, 장갑, 쇠솔, 전정가위



가든인 팁 참고자료

식물 진단 서비스

농촌진흥청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www.ncpmis.rda.go.kr
 경기도 농업기술센터 사이버 식물병원 www.plant119.kr/
 충북대학교 식물 종합병원 www.planthospital.org/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www.snupc.snu.ac.kr/
 안동대학교 식물종합병원 www.planthospital.andong.ac.kr

4계절 변치 않는 수확의 즐거움



다목적가위, 적과가위, 낫, 양손가위

4Season 전지가위

- 1) 고급소재 제질의 칼날과 열처리 및 정밀한 연마 기술로 우수한 절삭력 제공
- 2) 날 부분의 표면 연마 및 Chrome Plating 기술로 이물질이 잘 붙지 않음
- 3) 가지치기와 뿌리 정리용으로 적합하며 인체공학적인 손잡이 디자인으로 최적의 안정감과 편안함 제공

4Season
모시곤 원예용품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23 | 소비자상담실 : 080-022-3211
www.dorcoliving.co.kr



가지치기의 Tip, 시기

(나무, 관목 & 덩굴식물)



가지치기도구의 종류



가지치기 방법, 적절한 시기는
정원관리의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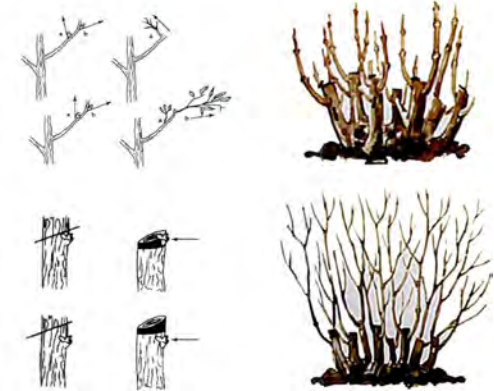
가지치기의 일반적 방법

- 약 45도 각도를 유지하며 자른다
- 전체의 1/3을 유지하며 잘라주고, 예외의 품종도 있다
- 사용도구는 늘 청결하며 날을 날카롭게 준비하여 자르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매끈하게 자른다.



일반적 가지치기의 Gardenin Tip

- 봄에 일찍 개화하는 식물은 일반적으로 개화후 바로 가지치기를 하여 식물 의 형태를 잡아주며, 다음에 더 많은 개화를 보는 방법이다.
- 낮은 관목으로 경계선의 표시를 나타내는 식물경우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후 자르도록 한다(냉해피해방지)
- 관목이나 덩굴 관목의 경계선(hedge)의 식물 경우 년 3회정도 다듬어 주어야 한다.
- 그림처럼 속 관이 보이거나 줄기의 생장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며 주변 부패가 없도록 한다.
- 사용 도구는 사용 전 점검하며, 식물의 종류를 파악하며 정확한 도구 사용시 절단면이 매끈하게 자른다.



가지치기의 시기별 식물 품목리스트

겨울 냉해기간이 없는 시기를 이용함이 유익	단풍나무 <i>Acer</i> , 다래나무 <i>Actinidia</i> , 산딸기 <i>Berry</i> , 박달나무 <i>Butula</i> , 능소화 <i>Campsis</i> , <i>Carpinus</i> , 노박덩굴 <i>Celastrus</i> , 층층나무 <i>Cornus</i> , 개암나무 <i>Corylus</i> , 섬개아광나무 <i>Cotoneaster</i> , 화살나무 <i>Euonymus</i> , 아광나무 <i>Malus</i> , 딱총나무 <i>Sambucus</i> , 멸꽃 <i>Stauntonia</i> , 등나무 <i>Wisteria</i>
봄	꽃댕강나무 <i>Abelia</i> , 금식나무 <i>Aucuba</i> , 작살나무 <i>Callicarpa</i> , 동백나무 <i>Camellia</i> , 갈매나무 <i>Ceanothus</i> , 누리장나무 <i>Clerodendron</i> , 말채나무 <i>Cornus alba</i> , 층층나무 <i>Cornaceae</i> , 안개나무 <i>Cotinus</i> , 금루매 <i>Hamamelis</i> , 무궁화 <i>Hibiscus</i> , 라바테라 <i>Lavatera</i> , 라벤더 <i>Lavendula</i> , 레이체스테리아 <i>Leycesteria</i> , 인동 <i>Honeysuckle</i> , 장식용그라스 <i>Grasses</i> , 홍가시나무 <i>Photinia</i> , 소나무 <i>Pinus</i> , 파라칸타 <i>Pyraantha</i> , 버드나무속 <i>Salix</i> , 버드나무 <i>Willow</i> , 풀송나무 <i>Santolina</i> , 조팝나무 <i>Spiraea</i> , 마삭나무 <i>Trachelospermum</i> , 제스민 <i>Confederate Jasmine</i>
여름	회양목 <i>Buxus</i> , 산당화, 명자나무 <i>Chaenomeles</i> , <i>Cornus mas</i> 호랑나무 <i>Ilex</i> , 등나무 <i>Wisteria</i>
가을	회양목 <i>Buxus</i> , 소나무 <i>Carpinus</i> , 산수유 <i>Cornus</i> , 아광나무 <i>Malus</i> , 담쟁이덩굴 <i>Parthenocissus</i> , 아이비 <i>Ivy</i> , 모란 <i>Paeoniasuffruticosa</i> , 모란 <i>Tree peony</i>
개화후 식물	으름나무 <i>Akebia</i> , 진달래 <i>Azalea</i> , 붓들리 <i>Buddleia</i> , 보리수나무 <i>Elaeagnus</i> , 에스칼로니아 <i>Escallonia</i> , 유포비아 <i>Euphorbia</i> , 개나리 <i>Forsythia</i> , 무궁화 <i>Hibiscus</i> , 수국 <i>Hydrangea</i> , 자스민 <i>Jasminum</i> , 황매화 <i>Kerria</i> , 콜크위트지아 <i>Kolkwitzia</i> , 인동덩굴 <i>Lonicera</i> , 인동 <i>Honeysuckle</i> , 마호가니 <i>Magnolia</i> , 꽃시계덩굴 <i>Passiflora</i> , 필라델피아 <i>Philadelphus</i> , 마취목 <i>Pieris</i> , 철쭉 <i>Rhododendron</i> , 까치밥나무 <i>Ribes</i> , 로즈마리 <i>Rosemary</i> , 바위수국 <i>Schizophragma</i> , 수국 <i>Hydrangea</i> , 라일락 <i>Syringea</i> , 가막살나무 <i>Viburnum</i> , 병꽃나무 <i>Weigela</i> , 등나무 <i>Wisteria</i>

Carpet Bedding, Wisley Garden

COLOUR IN THE GARDEN



Silver

오도
플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이미지식물원, 원리포수목원 근무

너무 하얗지도, 너무 검지도 않은 은색은 영어로는 실버라고 표현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동전 화폐 중에 10원짜리만 빼고는 모두 은색이고,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되어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실버세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가 보면 높이 솟아 오른 빌딩들에서부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도심 속 대부분의 건물들은 실버에 가까운 회색이다. 이처럼 은색 즉 실버컬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색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친근한 색이기도 하다. 그럼 이 실버컬러의 정원에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식물들과 어울리면 그 멋이 더욱 빛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 집 정원에도 하나 둘 들여다보자.



실버컬러는 밝고 화사함을 선사한다

은색은 밝다. 그리고 화사하다. 흰색의 보송보송한 털들이 식물체 전체를 소복이 덮고 있는 램스이어(Lamb's Ears)가 앞쪽과 뒷부분의 배경이 되면서, 밝고 화사함을 역할을 한번에 다 하고 있다. 티 없이 깨끗한 파랑과 보라색의 세이지가 흰색의 꽃과 은색과 만나면서 더욱 빛을 바라고 있다. 작고 양송이꽃들 사이로 널찍한 잎과 웅장하고 힘 있게 올라오는 램스이어(Lamb's Ears)의 줄기가 화단 전체의 균형을 잡아 준다.



Hestercombe House



실버컬러는 품격이 있다

고급스러운 빨강과 귀여운 핑크 색의 양귀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품격이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위를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버베스쿰(Verbena)의 은색의 잎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아함과 품격은 두 배가 된다. 하늘하늘 거리는 양귀비의 꽃잎을 두 팔 벌려 한껏 받쳐주는 듯한 버베스쿰(Verbena)의 잎은 그 자리를 더욱 품위 있게 해 준다.

실버컬러는 모든색을 어우르는 마술같은 색이다

화단 전체에 여기저기 피어나는 빨강, 파랑, 노랑, 분홍색 등 색상환의 기본색이 모두, 그것도 한꺼번에 피어 있다. 잘못하면 산만해져 버리기 쉬운 이 정원에 바탕색은 은색이다. 바닥으로 처리한 판석의 회색과 어울리도록 램스이어(Lamb's Ears)의 은색을 선택했다. 탑이 많은 램스이어(Lamb's Ears)를 선택해 부드러움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정원을 설계한 영국의 가드너 거츄르드 지킬(Gertrude Jekyll)은 섬세한 스케치를 통해, 웅장하고 넓은 공간의 여러 곳을 실버컬러로 장식해, 정원 전체의 품격이 있다.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는 실버컬러는 마치 마술사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

1. 실버와 핑크의 어울림

귀여운 이미지의 핑크색 꽃인 고데치아(Godetia amoena)와 흰색의 털로 우아함을 더해주는 램스이어(Lamb's Ears)의 잎이 만나면서 고상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연한 핑크와 짙은 핑크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고데치아(Godetia amoena)의 꽃잎에는 흰색이 들어가 있어서 핑크색을 더욱 부드럽게 해 주고 있다. 다음에 필 꽃봉오리가 수도 없이 준비하고 있듯이, 고데치아(Godetia amoena)만으로는 지나치게 화려할 수 있는 화단을 실버컬러의 램스이어(Lamb's Ears)가 중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 준다.



Hestercombe House



2. 실버컬러와 노랑의 어울림

풍성하고 화사한 실버의 잎을 가진 산토리나(Santolina)는 둥글둥글하고 작은 공 모양의 노랑 꽃을 피운다. 언뜻 보면 두 종류의 식물이 같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종류로만 만들어진 화단이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산토리나(Santolina)는 지중해의 강렬한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잎을 실버컬러로 변화 시키고, 노랑색의 꽃을 피워 벌과 나비를 유인한다. 실버컬러의 잎에 연노랑의 꽃들 그리고 잔디밭 사이사이로 하양색 꽃을 피우고 있는 토끼풀이 녹색의 식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더욱 귀엽고 아기자기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3. 실버컬러와 흰색의 어울림

실버와 흰색이 만나면 눈이 부신다. 잎과 줄기가 모두 양털처럼 보송보송한 털로 싸인 등자꽃(Lychnis coronaria)은 순백의 꽃이 피기도 하고, 자주빛에 가까운 핑크색의 꽃이 피기도 한다. 흰색과 핑크컬러는 둘 다 깨끗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버컬러의 줄기와 만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풍긴다. 단 실버컬러와 흰색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흐릿한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실버칼러와 보라의 어울림

담의장품의 개량종인 트라데스칸티아(*Tradescantia pallida 'Purpurea'*)의 진한 보라색 잎이, 실버컬러의 헬리크리섬(*Helichrysum petiolare 'Variegatum'*)과 만나면서 최상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서로 반대색인 보색의 효과는 아니지만, 실버컬러의 부드러움이, 강하고 진한 트라데스칸티아(*Tradescantia pallida 'Purpurea'*)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진에서 보듯 실버컬러는 어두운 식물의 주변에 심거나, 어두운 장소에 심으면 주변을 밝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Tradescantia, Wisley Garden



Tintinnula

5. 실버칼러와 녹색의 어울림

녹색을 배경으로 한 실버컬러의 부드러움이 우선 시선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멀리 보이는 노부부와 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잘 어울린다. 연못가의 바닥으로 깔린 실버컬러의 식물은 램스이어(*Lamb's Ears*)고 그 옆으로 키가 큰 식물은 우리나라의 쑥과 같은 속인 알터메시아(*Artemisia sp.*)이다. 연못 반대편 즉 사진의 맨 앞 쪽으로 핀 백장미가 정원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과 잘 어울리는 실버가든(*Silver Garden*)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6. 실버칼러와 파랑의 어울림

잎 끝이 뾰족하지만 힘차게 뻗어 올라가고 있는 알터메시아(*Artemisia ludoviciana var. albula*)와 공 모양의 파란색 에키놉스(*Echinops ritro*)가 만나면서 깨끗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한 둥근 모양의 꽃이 만나면서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식물의 생김새가 먼저 눈에 들어오면 거칠어 보이지만, 실버컬러와 에메랄드색의 파랑색 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편안함이 찾아온다.



Packwood House

Silver Garden에 잘 어울리는 식물들

Abies concolor 'Glauca Compacta'
(Valley Garden)
흰색전나무Abies concolor 'Glauca Compacta'
(Valley Garden)
흰색전나무

Acaena affinis (Wisley Garden) 아카이나



Achillea 'Huteri' (Wisley Garden) 뽕풀

Artemisia ludoviciana 'Valerie Finnis' (Wisley Garden)
루도비키아나속Helianthemum 'Henfield Brilliant' (Wisley Garden)
힐리엔써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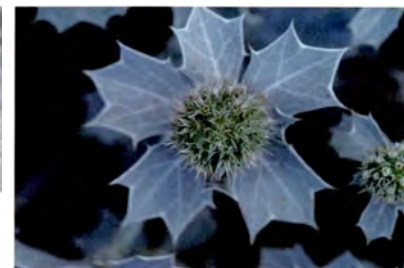
Eryngium amethystinum (Riton Garden) 애린자음



Lychnis coronaria (Wisley Garden) 무단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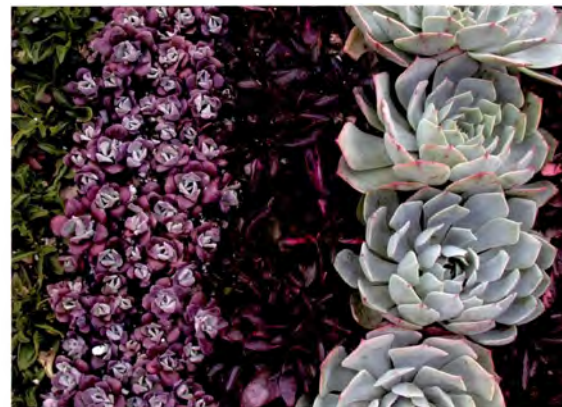
Potentilla calabra (Wisley Garden) 양지꽃



Eryngium maritimum Bury Court 해변애린자음



Eryngium maritimum Bury Court 해변애린자음



Sempervivum 'Silver Spring' (Carpet Bedding, Wisley Garden) 바위솔



Senecio cineraria '백묘국'



칼루나 속(*Genus Calluna*)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시베리아, 터키, 모로코, 아조레스군도에 걸친 산성토양의 황무지와 저지대에 자라는 상록 관목으로 한 종의 속이다. 아주조밀하게 작은 가지를 따라 피어나는 꽃은 보통 가을에서 봄에 걸쳐 피는데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 피는 종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고속도로 주변 숲 가장 자리를 덮고 가을에서 봄에 걸쳐 분홍색의 매트처럼 피는 꽃으로 흔하게 볼 수 있어 여행 중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종도 있는데 에리카(Erica)라는 속과는 구별되나 이전에는 에리카 속에 포함되었었다. 종 모양 꽃이 빨강색, 보라색, 분홍색, 흰색, 노란색으로 핀다. 꽃받침은 일반적으로 4개의 열편이고 환관보다 길다. 어린식물의 꽃줄기는 짧은 것은 1-5cm, 중간 크기는 5-10cm, 긴 것은 10cm이상이다. 식물이 크게 자라면 총상꽃차례가 더 짧아진다. 잎은 마주보고 겹치는 쌍으로 줄기를 따라 총총하게 자란다.

잎은 약간 통통하며 긴 형태로 보통 짙은 초록이며 겨울에는 적자색이 된다. 500개 이상의 재배변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땅을 덮을 정도로 잘 자란다.

겨울의 내한성은 강하지만 너무 건조한 겨울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건조성 동해를 입을 수 있다. 산성토양을 좋아하므로 관수장치가 잘된 정원에서는 소나무 아래 지 피용으로 매우 좋은 식물이다. 그러나 토양은 습윤지 이면서 통기성이 좋은 곳을 좋아하므로 특별히 야외에서 장기간 기르기 위해서는 토양조건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로 실내에서 기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분화재배로 겨울철 식물로 좋다. 번식은 여름에 뿌리를 5cm 정도로 잘라 삽목을 하거나 봄에 줄기를 삽목 한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진균류에 의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주로 회색곰팡이에 의한 뿌리썩음병 등이 생길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재배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동의나물 속 (*Genus Caltha*)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대지방에서 북반구의 추운 지방까지 분포하고, 습지대 또는 물가에 서식하는 습기를 좋아하는 뿌리줄기를 가진 수년의 다년생 초본으로 10종으로 이루어진 속이다.

잎은 보통 하트나 콩팥 모양이다. 이른 봄 노랑거나 흰색의 꽃이 핀다. 꽃들은 줄기 끝이나 잎자루 사이에서 피어 산방꽃차례로 잎이 다 자라기 전에 핀다. 늦여름에 두 번째로 같은 높이의 꽃이 종종 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무더운 여름의 기후에서는 봄에만 꽃을 볼 수 있다. 동의나물 속은 물가에서 가장 잘 자라지만 몇몇은 좋은 습기가 있는 초원에 기타의 식물들과도 혼입되어 살기도 한다. C.introloba는 토탄을 섞은 구유 등에 심어 고산식물정원의 연출 등에 적합하다.

서리와 겨울철 완전한 내한성이 있다. 재배는 야외의 풍부하고 습기 찬 토양에서 햇빛이 잘 드는 물의 가장자리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가끔은 침수가 되는 지역에서도 재배 가능하다.

증식은 차광막을 치고 시판되는 원예용 상토에 종자가 완전히 여름기 전 뿌리고 항상 촉촉한 상태로 관리한다. 여름 흰가루병이 발생된다.

금잔화 속 (*Genus Calendula*)

금잔화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년생이지만 남부지방이나 섬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상록으로 자라며 날씨가 따뜻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겨울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다. 흡사 관목 같은 성장을 이루는데 이는 목질을 기반으로 한 상록성 다년생 식물과 같이 취급받기도 한다. 20-30여 종의 속으로 남유럽에서 북아프리카까지의 경작지, 황무지, 돌이 많은 서식지에 존재한다. 잎은 마주나고 단순하며 향이난다. 오렌지 혹은 노란화판에 노란색, 오렌지색, 보라색, 자주색, 갈색의 동그란 통꽃은 여름부터 가을, 온난한 겨울까지 지속적으로 핀다. 많은 재배종은 화단에 좋고 꽃은 잘랐을 때 오래 꽃을 피울 수 있어 절화용으로 이용해도 좋다. 서늘한 온실에 재배하면 좋다.

포트 재배를 위한 온실에서 재배할 때는 밝은 빛에서 기르고 물은 적당히 준다. 옥외에서는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들거나 반그늘의 토양에서 기르고 개화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든 꽃을 따내 열매가 맺는 것을 방지한다. 꽃꽂이를 위해 기른다면 키를 키우기 위해 측아를 제거하고 반대로 화분 등에 재배할 때는 끝 순을 잘라주어 많은 가지를 발생시키면 아주 많은 꽃을 피울 수 있다. 증식은 봄이나 가을에 파종하는데 종자는 쉽게 구입가능하고 최근의 원예용 종자는 꽃이 크고 키가 작은 품종이 많지만 다양한 이용을 위해서는 일반종을 이용하는 것도 재미있고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남부지방의 돌메지 용이나 화단에 가을에 심을 경우 겨울에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이다. 이런 경우 현장에 씨앗을 뿌리고 비닐을 덮어주거나 페트병을 잘라 덮어 주면 어린 모종이 잘 자란다. 병충해로는 응애와 진딧물에 의한 피해와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다.





실새풀 속 (Genus Calamagrostis)



우리나라에도 다양하게 있는 실새풀, 들새풀, 산조풀 등의 쉽게 볼 수 있는 화본과의 관상가치가 있는 식물 속이다. 주로 지하에 근경을 가지고 촘촘하게 자라는 산조풀과 포기를 이루어 자라는 산새풀 등이 주로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아름다운 이삭 꽃을 피운다.

그리고 귀화 식물인 나도솔새라는 식물이 직립형으로 새로운 정원 소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무늬새 그라스라는 무늬종 품종도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이삭이 말라도 계속 마른줄기를 가지고 있어 녹색의 잎들과 대비되며 매우 고급스러운 경관을 연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원에도 화본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도 자연스럽게 조경에 이용되고 있다.

내한성이 강한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대부터 북미의 축축한 삼림지, 습지에 서식을 한다. 선형이고 납작하거나 관이 있는 잎이 있고 가지를 치는 원추꽃차례에 꽃을 피운다. 경관용 제배 종은 여러 종류의 꽃으로 이루어진 혼합식재로 이루어진 화단이나 초본화단에 적합하다. 몇 종은 다른 식물에 해가 될 정도의 침해종일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살 수 있으나, 축축하고 부식토가 많은 토양이 알맞고 밝은 양지에서 약간 그늘이 진 토양에서 기른다. 초봄, 새 성장이 시작하기 전 겨울에 남아있던 지상부 줄기를 잘라낸다. 증식은 봄 중순에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은 거의 없어 토질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너무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는 꽃이 작고 잎과 줄기가 너무 빨리 망가져 볼품없이 되고 녹병 등에 의한 피해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꽃연구소
UNIVERSITY
전화 02-534.7990



아직도 헤매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제품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쪽~꿍입니다!! 비로만 듬뿍!!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상록잔디패랭이



나비가 날았을까? 짐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드트리



꽃방석, 말해 댜봐!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아니 열~수, 열~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꾸러미 꽃향기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팅커벨 시리즈

아름다운 식물들



윤 평 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누가 문기를 수신했던 동안 식물을 관찰, 연구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식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을 때마다 나를 당황케 한다. 모든 식물들이 다 아름다운데 어떤 식물을 아름답다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며, 나의 대답은 늘 모든 식물들이 다 아름답지요 라고 대답한다. 재차 묻는다 해도 나의 대답에는 변함이 없다. 언젠가 친구가 보잘 것 없는 화초 하나를 죽기 직전까지 간 식물을 가지와 버리기는 아깝고 나보고 전문가니까 키워보라고 하여 잘 키워서 내 연구실에 장식해 놓았다. 어느 날 친구가 연구실에 들러 이 신품종의 싹 하나만 줄 수 없느냐고 문기에 내게 준 식물이라고 하면서 말했더니 놀란 표정으로 웃어넘긴 일들이 있다.

식물 이름은 무늬점란(*Chlorophytum comosum* 'Picturatum')으로 흔한 식물이었지만 잘 관리하여 키우면 아름다운 식물로 둔갑되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신품종이 6분에 한 개씩 탄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0개의 신품종이 전 세계에서 탄생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기가 있는 품종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인간에게 사랑을 받으며 보전되고, 인기가 없는 것은 빨리 도태될 것이다. 인기 품종은 아름다움과 기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병해에 강해야 하며, 관리가 소홀해도 잘 견디는 것으로 늘 신선감이 유지되어야 인기가 있다고 보겠다. 이번 소개되는 식물들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식물로 아직 한국에서 흔히 보지 못 했던 식물들을 소개 해보려고 한다.

털백리향(*Thymus pseudolanuginosus*)



형태상의 특징 높이 15cm, 폭이 30~50cm 상록다년생 식물 관엽(觀葉), 관화(觀花), 허브식물, 지피식물. 잎의 향기가 나며, 줄기는 덩굴성으로 붉은 연황갈색이 나며 잎은 대생하고 엽병은 짧다. 잎은 난형 또는 난상타원형이며 끝은 둔하게 뾰족하다. 잎색은 회록색으로 흰색 털이 조밀하며, 개화기는 6~7월 또는 7~9월이며 꽃은 길이가 6mm로 분홍색꽃. 봄에 새싹이 돌아나올 때면 용단처럼 아름다우며, 용도로는 중정식정원식재용이나 컨테이너식재용, 락가든(rock garden)식재용, 연못가장자리식재용, 지피식재용, 허브정원식재용으로 이용된다. 햇빛과 노지에서 월동하고 16~25℃에서 잘 자라며 고온다습에 약하다. 물주는 보통, 배양토는 발효과 부엽, 개울모래를 5:3:2의 비율로 혼합. 번식은 종자를 파종하거나 봄에 분주로 번식한다. 발아는 늦은 편이다.

황금산 개미자리(*Arenaria verna* L. 'Aurea') 석죽과식물.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록키산맥이 원산지. 캣치모스(*Scotch Moss*), 본품종은 골든스캣치모스(*Golden Scotch Moss*, *Aurea Scotch Moss*, *Golden Moss*). 형태상의 특징 높이 5~10cm, 폭 15cm. 소형의 상록다년생. 줄기는 가늘고 총생하며 이끼 모양 지면을 덮는다. 잎은 선상침형에 털이 없고 3개의 맥이 있으며 잎색은 원종은 녹색이지만 황금색이 난다. 개화기는 7~8월, 흰색의 작은 꽃이 줄기 끝에서 핀다. 꽃잎과 꽃받침이 각각 5개로 꽃받침은 넓은 피침형이며 길이는 3mm 정도. 꽃받침에는 3개의 맥으로 끝이 뾰족하다. 열매는 삭과로 3갈래로 갈라진다. 타원형의 작은 종자이고 지피식재용, 락가든(rock garden)식재용, 포석식재용, 카펫화단용, 컨테이너식재용, 고산식물원식재용으로 식재. 밝은 반그늘에서 잘 생육하며 노지에서 월동하고 16~25℃에서 성장. 관수,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에서 잘 자란다. 번식은 종자로 하거나 분주, 삽목으로 행한다.

멕시코칸릴리 '플라밍고 글로우'(*Beschorneria yuccoides* K. Koch 'Flamingo Glow')



과거에는 백합과(Liliaceae), 비자루과(Asparagaceae)로 분류. 원산지는 멕시코로 멕시코칸릴리(mexican lily) 명명. 해발 2700~3000m 높이에서 자생 하여유카 비슷하여 학명도 라틴어로 yuccoides로 부른다. 높이 180cm, 폭이 180cm 상록다년생 관엽식물. 줄기는 없으며 잎은 로제트상으로 자라며 길이가 60cm, 엽폭이 5cm로 선형이고 혁질로 회록색이 나며 중앙에 세로로 연황색 내지는 크림색 무늬가 들어있고 끝은 뾰족하다. 잎은 무자유카(*Yucca elephantipes*)보다 더 부드러우며 아치형으로 늘어진다. 개화기는 여름이며 꽃대 높이가 180cm 정도 자란다. 꽃대는 포기 중앙에서 아치형으로 자라며 포엽과 꽃대, 꽃자루가 붉은 색이 나고 포엽에서 여러 개의 꽃이 원추화서로 소포엽 속에서 늘어져서 핀다. 꽃봉오리는 녹색이 나며 개화하면 크림색이 난다. 꽃은 길이가 3~4cm, 지름이 1.5~2.5cm이며 열매는 삭과로 길이가 3~4cm 정도 된다. 분식용으로 관상한다. 햇빛을 좋아하며 0℃ 이상에서 월동하고 10~25℃ 성당. 보통으로 관수 관리와 과습은 피하여야 한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에 부엽, 개울모래를

두란타 '골드 에이지'(*Duranta erecta* L. 'Gold Edge')



원산지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의 바야, 카리비안, 고르다, 중앙아메리카, 수리남, 베네주엘라,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로 중국에서는 개나리 비슷하다하여 가연요(假連翹)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꽃이 푸른하늘색 모양 핀다하여 스카이플라워(skyflower)라고 불린다. 높이와 수관 폭이 4.2m 정도 자라는 상록관목으로 관엽 관화식물이다. 가지는 분지성이 강하고 아치형으로 늘어진다. 잎은 난형 내지는 타원상 피침형이며 잎색이 녹색 바탕에 잎 가장자리에는 거치가 있으며 황색무늬가 불규칙하게 들어있다. 개화기는 여름이며 꽃은 총상화서로 푸른보라색꽃이 핀다. 화서 길이는 10~20cm 정도 되며 꽃 지름은 1.2~1.5cm 정도 된다. 열매는 핵과로 둥글며 옅은녹색으로 달리고 지름이 7mm 정도 된다. 아열대지방이나 관엽 관화식물이며 분식용으로 재배하며 열대지방에서는 정원용으로 식재한다.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충분한 햇빛을 요하며 7℃ 이상에서 월동하며 16~30℃에서 잘 자란다. 보통으로 관수하며 배양토는 발효과 부엽, 개울모래

유다화 '브레스레스 화이트'(*Euphorbia* 'Breathless White' (*Euphorbia* 'Babrewite'))



원예교배종으로 높이가 20~30cm, 포기의 폭이 25~30cm 정도 자라는 온실상록다년생 초이지만 일년초로 취급되는 관화식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다화 '다이아몬드 프로스트'(*Euphorbia* 'Diamond Frost')가 소개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원예품종이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품종으로 소개되고 있다. 포기는 반원형으로 둥글게 자라며 줄기가 많이 분지한다. 잎은 대생하며 엽병 길이가 1.5~3cm, 잎 길이가 3~5cm, 엽폭은 1~2.5cm이며 긴타원형 내지는 피침형으로 녹색이 나며 잎 끝은 뾰족하다. 개화기는 7~9월이며 꽃은 가지 끝부분의 엽액에서 6cm 정도 되는 꽃대가 자라 Y자형으로 벌어져 2개씩 흰색의 작은 포엽이 꽃잎처럼 피며 꽃은 녹색의 꽃받침에 싸여 작은 꽃이 핀다. 꽃잎은 화포엽이 흰색이 나며 포엽은 3~4개가 난다. 용도로는 분화용, 지피식물 용, 화단용으로 이용되며 충분한 햇빛이나 밝은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0℃에서 월동하며 16~30℃에서 잘 자란다. 관수는 보통으로 관리하며 배양토는 발효과 부엽, 개울모래를 4:4:2의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한다. 번식은 분주나 삽목으로 번식한다.

아이슬랜드포피 '샴페인 버블 믹스'(*Papaver nudicaule* 'Champagne Bubble Mix')



원산지는 동부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만주서부, 몽골, 알라스카, 북반구의 극지로 아이슬랜드포피(Iceland Poppy)명명. 높이 45cm, 폭 15cm 정도. 다년생. 한국에서는 겨울이 추워 일년초로 취급된다. 줄기는 직립성으로 총생하며 잎은 근줄엽이 로제트상으로 자라고 엽병이 있다. 꽃대와 잎에는 털이 있으며 잎은 난형으로 우상이며 중간쯤 갈라지거나 깊이 갈라진다. 개화기는 봄에 파종 했을 때 5~6월이며 온실에서 재배하면 12~5월에 개화한다. 꽃은 30cm 정도 되는 긴 꽃대 끝에서 한개 씩 피며 지름은 12~13cm 정도로 대륜종이다. 꽃 색은 황색과 흰색, 분홍색, 붉은 오렌지색과 주홍색, 붉은색, 살구

아름다운 식물들

색, 연황색으로 피며 꽃잎은 4개이다. 열매는 삭과(蒴果)로 긴 타원형이며 털이 조밀하게 나 있다. 관상용으로 재배되며 화단용, 정원용, 분화용, 절화용으로 재배된다. 충분한 햇빛을 요하며 종자로 월동하며 15~23℃에서 잘 생육한다. 보통으로 관수하며 발효과 부엽, 개울모래를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한다. 번식은 종자로 파종



Island Poppy Champagne Bubble Orange Red



Island Poppy Champagne Bubble White



Island Poppy Champagne Bubble Yellow

아프리카수크령 '체리 스파클러'

[*Pennisetum setaceum* (Forssk.) Chiov. 'Cherry Sparkler']

벼과식물로 원산지 아프리카, 아시아서남부, 아라비아반도로 관엽 관화식물이다. (fountain grass). 높이 92~102cm, 폭이 32~60cm 속근성 다년초로 2012년에 2월에 발표된 품종. 관엽 관화식물(觀花植物)로 줄기와 잎 화서는 수크령 비슷하게 자란다. 잎은 길이가 30cm, 폭은 좁고 납작하며 길게 선상으로 자라고 잎색이 주맥을 중심으로 녹색이 나고 양 가장자리에 흰색과 크림색분홍색무늬가 들어 있다. 개화기는 7~8월이며 붉은 자주빛을 띤 꽃을 피어 오래동안 간다. LA에서는 조경용으로 이용된다.

신서란 '어메이징 레드' (*Phormium tenax* J. R. Forst. & G. Forst. 'Amazing Red')

원산지는 뉴질랜드로 원예품종이고 잎새란으로도 부른다. 원종은 높이가 90cm정도 자라지만 본 품종은 약간 작게 자란다. 잎은 선형으로 끝이 뾰족하며 잎 가장자리는 매끈하다. 잎색이 원종은 녹색이지만 본 원예품종은 검붉은 갈색이 나며 녹색 식물 가운데 식재하면 검붉은 갈색이 대비가 뚜렷이 나타나 이색적이다. 용도로는 화단식재용, 분식용, 컨테이너식재용, 절엽용으로 이용된다. 충분한 햇빛에서 잘 자라며 5℃ 이상에서 월동하고 16~30℃에서 잘 자란다. 배양토는 발효과 부엽, 개울모래를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식재하면 되며 번식은 분주로 한다.

자주암자목 '루브룸' [*Pseuderanthemum carruthersii* (Seem.) Guillaumin var. *atropurpureum* (W. Bull) Fosberg Rub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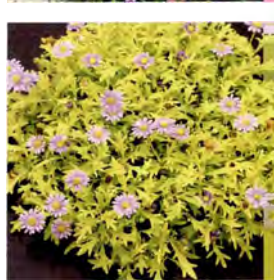
영명: Black Varnish Plant, Black-leaf Shooting Star, 형태상의 특징은 높이가 60~120cm, 포기의 폭은 45~60cm 정도 자라는 열대 상록관엽식물이지만 한국에서는 1년초로 취급된다. 속성으로 자라며 줄기는 직립성이고 검붉은 암갈색이 난다. 잎은 대생하며 엽병이 1cm 내외, 잎 길이는 12cm, 엽폭은 6cm로 난형이며 끝은 둔하게 뾰족하다. 잎색은 표면이 검붉은 자주색이 나며 약간 광택이 나고 뒷면은 밝은 자주색으로 광택이 난다. 개화기는 5월초순이며 꽃은 흰색과 자주색의 작은 꽃이 핀다. 컨테이너식재용과 분식용, 화단식재용, 색재화단식재용으로 재배된다. 충분한 햇빛을 요하며 햇빛에서 잎색이 아름답게 발색된다. 5℃ 이상에서 월동하며 16~30℃에서 잘 자란다. 내건성식물로 보통으로 관수관리하며 공중습도는 다습하게 관리하며 환기를 요한다. 배양토는 발효과 부엽, 개울모래를 4:4:2의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하며 종자 번식과 삽목으로 번식한다.

테우크리눔 스코로도니아 '크리스프' (*Teucrium scorodonia* L. 'Crispum')

원산지가 서부유럽과 튀니시아로 미국에서는 우드 저먼더 또는 우드 세이지(wood germander, 또는 wood sage)로 부른다. 높이가 30~60cm 정도 자라는 관목으로 신기한 느낌을 준다. 가지는 네모가 지며 붉은 갈색이 나며 옆으로 퍼진다. 잎은 대생하며 엽병이 있고 난형으로 잎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한 거치자리에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저 있고 약간 도드라져 있다. 잎색은 은회색을 띤 황록색이 나며 표면에 털이 나있다. 개화기는 6~8월이며 꽃은 연노란색을 띤 흰색 내지는 연노란색꽃이 핀다. 용도로는 분식관상용, 화단식재용, 컨테이너식재용으로 이용된다. 햇빛을 좋아하며 5℃ 이상에서 월동하며 16~25℃에서 잘 자란다. 보통으로 관수하며 배양토는 발효과 부엽, 개울모래를 4:4:2의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한다. 번식은 종자로 파종하거나 삽목으로 번식한다.

우리꽃 품종 독립!
이유가 있습니다.우리꽃연구소 다양한 신품종 개발로 해외 로열티 수출!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 품종, 더많은 품종 대기중!

우리나라는 로열티 수입국이다. 대한민국이 독립한지도 어언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화훼시장에 있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재배품종을 석권하다시피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로열티를 주고 들어와 재배되는 것이다. 때문에 관연 우리나라에 종자 주권이 있을까? 아니 종자 주권관임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다른 품목은 몰라도 화훼품종만큼은 우리가 품종 주권국이라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가 도로가나 정원의 가장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야생화(조경, 정원용 다년생) 품종은 해외 수입품종임을 인정하면 오히려 더 쉽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토종 화훼 기업이 아무도 알아 주지 않아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Special Issue

우리 정원에 아름다움을 담다.

- 2015년, 신개념 정원식물 가이드 -

정원용 소재로서 꽃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은 정원용 식물이 보급되어 있다. 하지만 그 종류에 비해서 아직도 정원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미약하다. 이번호에서는 개인 정원에서, 공공의 정원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원용 종자, 야생화, 관목을 다양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 품종에서부터 새롭게 개발된 품종에 이르기까지 아직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정원식물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길 기대해 본다.

이 봄에 만날 수 있는 "정원용 종자" 1, 2년초부터 다년초, 허브, 덩굴식물에 이르기까지 종자로 가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정원용 종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년초, 허브 (Perennial, Herb)

1. 톱풀 파스텔

잎의 모양이 톱처럼 생겼다가여 톱풀로 불리며 지는 꽃으로 파스텔톤의 꽃은 매우 고급스럽다. 건조에 강하고 꽃이 매우 장기간 개화하는 장점이 있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10월 초장: 50~60cm

2. 벚초향(하숨)

잎의 향이 뛰어나 허브정원에 좋고 하얀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져 피는 꼬리모양의 꽃은 여름을 시원하게 해준다. 잎을 먹을 수도 있어 가정정원 재배에 좋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8월 초장: 60~70cm

3. 알레칼라

스프레이형의 노란색 맑은 꽃은 고급이미지를 더해 주고 절화용으로도 좋다. 구형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고 연꽃과 같이 잎에 물이 떨어지면 은구슬과 같이 구르는 모습이 아름답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6월 초장: 40~50cm

4. 눈구슬갯쟁이

이른 봄에 노란색 꽃방석을 이루는 식물로 잎이 은회색으로 질감이 뛰어나고 포복성으로 자라 돌과 어울려 심으면 효과적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4~5월 초장: 10~15cm

5. 메카나매발톱

위로 뻗은 긴 꽃봉이 매의 발톱을 닮았다 해서 매발톱이라 불린다. 대표적인 봄꽃으로 화색이 다양하고 매우 화려한 매발톱으로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월 초장: 50~60cm

6. 아스타

국화과의 대표적인 정원식물이며 키가 작고 꽃이 오래피며 매우 많은 꽃을 피운다. 가을정원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9~10월 초장: 25~30cm

7. 아우브리에타

포기가 방석모양으로 퍼지고 작은 꽃이 모여서 핀다. 돌과 어울려 심으면 효과적이고 일반적으로 암색가운데 좋은 꽃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4~5월 초장: 10~15cm

8. 사스타데이지 브리즈

키가 작고 꽃 중앙의 노란색 심이 크고 진하며 일찍 파종하면 첫해에도 꽃을 볼 수 있다. 봄에 피는 국화와 식물로 생육이 매우 강건하고 많은 꽃을 피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6월 초장: 25~30cm

9. 사스타데이지 실버프린세스

키가 작고 맑은 하얀색의 꽃은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을 준다. 일찍 파종하면 첫해에도 꽃을 볼 수 있고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잘 자란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6월 초장: 35~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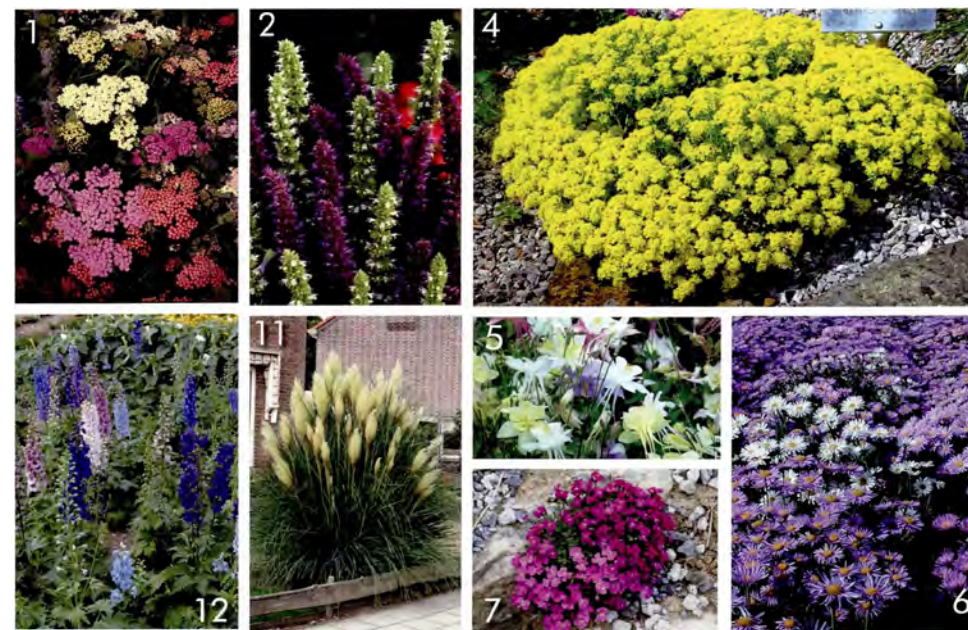
10. 금계국 왜성사계
검꽃으로 피는 금계국으로 일반 금계국에 비해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다. 일찍 파종하면 첫해에도 꽃을 볼 수 있고 꽃 또한 오랫동안 피는 장점이 있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9월 초장: 40~50cm

11. 팜파스그라스

역새와 같이 대형으로 자라는 품종으로 전체적인 식물의 형태가 매우 아름다워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 추위에 약해 겨울에 짙이나 보온재 등을 덮어 보온해 주어야 한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9~11월 초장: 200~250cm

12. 델피니움

방망이 형태의 큰 꽃이 여름에 시원하게 피는 꽃으로 매우 화려하여 정원의 포인트식물로 좋은 꽃이고 큰 화분에 재배해도 좋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7월 초장: 150~170cm



13. 왕수염패랭이
꽃이 모여 주먹형으로 피는 패랭이로 화색이 다양하고 매우 화려하다. 건조에 강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선호한다. 양분이 많은 토양에서는 더욱 밝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7월 초장: 50~60cm

14. 솔패랭이
다양한 색상이 아름다운 패랭이로 꽃의 끝부분이 실처럼 뿔어져있어 솔패랭이라 부른다. 건조 척박지 등에도 잘 자라고 빨리 자라 화분재배용으로 좋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7월 초장: 30~40cm

15. 디기탈리스
대형의 꼬리형 꽃대가 나와 윗쪽으로 피어 올라간다. 이색적인 꽃모양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며 인기가 높고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심어 감상하면 좋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7월 초장: 100~120cm

16. 17. 에키나 핑크 / 에키나 스노우
이국적인 고급스런 꽃은 정원에 잘 어울린다. 꽃이 지고 난후에도 솔방울 모양의 아삭을 가지고 있어 절화용으로 좋다.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하면 더 풍성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8월 초장: 70~80cm

18. 에키노스
꽃은 보라색 꽃방망이 같이 피며 이색적인 모양이 돋

보인다. 절화용(드라이플라워)로도 좋은 소재이며 양지의 물바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8월 초장: 80~100cm

19. 에린지움
꽃과 잎의 형태가 매우 이색적인 식물이다. 전체적으로 보라색과 은회색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8월 초장: 80~100cm

20. 가우라
5월말부터 계속 꽃을 피우는 장기개화의 대표종이다. 나비를 연상시키는 꽃은 우리의 정서와도 잘 어울린다. 생육이 강건하여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잘 자란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10월 초장: 70~80cm

21. 헬리오트립
항기식물로 허브정원에 잘 어울리고 식물에서 은은한 바닐라향이 난다. 보라색꽃은 향기와도 잘 어울리고 추위에 약해 겨울에는 보온이 필요하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9월 초장: 40~50cm

22. 라벤다
라벤더는 가장 인기있는 허브류로 꽃이 아름답고 그윽한 향이 난다. 꽃은 자주색이나 파란색이며 꽃, 잎, 줄기를 달고 있는 털들 사이에 향기가 나오는 기름샘이 있다. 중부지방에서는 겨울 보온이 필요하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8월 초장: 40~50cm

23. 라이트라스
여름에 피는 긴 꽃방망이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여름의 귀공자로 손색이 없다. 일반 꽃과는 달리 꽃이 위에서부터 피어 내려오고 개화가 길고 식물의 형태가 매우 아름답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9월 초장: 60~70cm

24. 루피너스
꽃색이 화려하고 다양한 화색을 연출한다. 꽃이 층층이 둘러싸는 모습을 하고 있다. 좋은 꽃을 보기위해서는 비옥하고 물바짐이 좋은 토양에서 재배해야 한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7월 초장: 70~90cm

25. 비단둥자꽃
진분홍색의 꽃이 꽃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매우 화려한 동자꽃이다. 통풍이 잘 되고 물바짐이 좋은 곳에서 생육이 양호하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6월 초장: 40~50cm

26. 붉은잎동자꽃
일반 동자꽃보다 진한 주황색의 꽃과 적색의 잎이 잘 어울리는 동자꽃으로 대체로 양지를 선호하지만 활엽수 반음지에도 잘 자란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7월 초장: 30~40cm



27. 모나다
아름다운 항기식물로 여름에 화색이 다양한 꽃을 피우고 많은 벌들이 찾아온다. 잎의 향기가 좋아 허브 식물로도 좋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8월 초장: 60~70cm

28. 네페타
레몬향이 나는 관상용 허브로 양지에서 잘 자라며 옮겨심기를 한 후에 순지르기를 한번하면 꽃대의 수를 많게 할 수 있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8월 초장: 30~40cm

29. 분홍꽃달맞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는 달맞이꽃으로 분홍색의 꽃이 많이 달린다. 포복성으로 자라며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10월 초장: 30~40cm

30. 꽃범의꼬리
꼬리모양의 아름다운 꽃은 여름정원에 시원함을 가져다 준다. 생육이 강건하고 관리가 용이해 재배하기 쉬운 식물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8월 초장: 60~70cm

31. 32. 33. 불가리스할미꽃 바이올렛/레드/화이트
꽃의 색상이 매우 아름다운 할미꽃으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화분재배에 알맞다. 뿌리가 굵고 길게 자라므로 양지의 배수가 좋은 곳을 선호한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4~5월 초장: 25~30cm

34. 숙근사루비아
향기가 좋고 꽃도 아름다운 사루비아로 꽃이 일시에 개화하면 매우 화려하다. 또한 꽃이 만개하면 많은 벌과 나비들이 찾아온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6월 초장: 50~60cm

35. 사포나리아 로즈
꽃잔디를 연상시킬 정도로 분홍색 꽃방망이를 이루는 식물이다. 봄에 매우 작은 분홍색의 꽃이 모여 큰 꽃 무리를 형성하여 꽃방망이를 이루고 줄기는 포복성으로 길게 자란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4~5월 초장: 15~20cm

36. 램스이여
식물전체가 은회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툼한 잎에 흰털이 보송보송하게 덮여있다. 꽃은 자주색으로 피고 꽃과 잎이 동시에 아름다운 식물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6월 초장: 40~50cm

37. 타임
강한 향이 멀리까지 난다고 해서 백리향이라고도 하는 타임은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옆으로 퍼지며 보라

색 꽃이 솜사탕처럼 둥글게 핀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7월 초장: 10~15cm

38. 버바스컴
기다란 굵은 꽃대에 화려한 꽃무리를 장식한다. 일찍 파종하면 첫해에도 꽃을 볼 수 있다. 개인 정원에 알맞은 꽃으로 고급스런 이미지를 전달한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5~6월 초장: 60~70cm

39. 베로니카(꼬리풀)
생육이 강건하고 촘촘한 형태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물기가 있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고 정원용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꽃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6~8월 초장: 60~70cm

40. 삼색제비꽃
연중 개화하는 제비꽃으로 분지력이 좋아 여름장마에도 강하고 포복성으로 행잉용으로 좋다. 잔디밭 주변 등 키 낮은 식물로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4~10월 초장: 10~15cm



>>1, 2년초(Annual, Biennial)

41. 아계라럼

멕시코양귀귀라고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지만 여름철 고온기에는 꽃이 잘 피지 못하고 생육적온은 15~25℃ 정도이다. 서늘한 온도에서 꽃이 잘 피고 강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25-30cm

42. 겹접시꽃

일반 화단에 심어왔던 접시꽃과는 달리 겹꽃으로 겹겹의 꽃잎이 화려하다. 생육이 강건하고 색상이 다양한 품종이다.

파종시기: 3-10월 개화기: 7-9월 초장: 70-80cm

43. 금어초

절화 및 화단용으로 이용되는 꽃으로 꽃의 모양이 헤엄치는 금붕어를 닮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색이 다양하고 꽃말은 '참견·고백'이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70-80cm

44. 아프리카칸데이지

다양한 화색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크게 피는 꽃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화단용으로 좋은 소재이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35-40cm

45. 금잔화

금송화라고 불리기도 하며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한다. 이 품종은 줄기가 길고 겹꽃과 반겹꽃으로 피는 품종으로 생육이 강건하여 재배가 쉽다. 꽃말은 '겸손·인내'이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50-60cm

46. 과꽃 프린세스

키가 큰 품종으로 겹꽃으로 다복하게 꽃이 피며 정원용 뿐만 아니라 절화용으로 이용해도 좋다. 생육이 강건하여 재배가 쉽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60-70cm

47. 과꽃 유니컴

꽃이 겹꽃으로 피며 꽃잎이 바늘과 같이 가늘게 피는 이색적인 꽃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육이 강건하여 재배가 쉽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50-60cm

48. 수레국화

생육이 강하여 어디에서도 잘 자라며 하양, 보라, 검정, 분홍, 빨강색의 꽃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독일의 국화(國花)이기도 하며 꽃말은 '행복감'이다.

파종시기: 9-6월 개화기: 5-10월 초장: 70-80cm

49. 마가렛

하얀색의 작은 꽃이 눈송이처럼 모여 피는 꽃으로 잎은 쭈크릿잎과 유사하다. 분화단에 키가 작은 꽃으로 빠질 수 없는 초화류이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25-30cm

50. 백모국

은색의 잎이 관상 가치가 뛰어나 식물로 질감이 매우 좋아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 디스플레이 할 때 주식물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베이스식물로 유용하다.

파종시기: 3-6월 초장: 20-25cm

51. 클라키아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건하여 재배가 용이한 식물이다. 꽃의 색도 하양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등 다양하다. 양지나 반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30-40cm

52. 풍종초

꽃모양이 바늘모양으로 피는데 족도리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꽃이 크고 화려하며 빨리 자라고 강건하여 재배가 쉬운 식물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80-100cm

53.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5월부터 꽃이 개화하는 코스모스로 꽃지름이 7-10cm정도로 크고 키가 작고 줄기가 튼튼하여 잘 쓰러지지 않는다. 꽃대도 짧게 나와 식물체의 품이 매우 단정하다.

파종시기: 3-7월 개화기: 5-10월 초장: 60-70cm

54. 황화코스모스 크레스트

노란색과 주황색이 혼합되어 피는 키가 작은 코스모스이다. 키가 작고 절간이 짧아 쓰러지지 않고 일찍 파종하면 5월부터 꽃을 볼 수 있다.

파종시기: 3-7월 개화기: 5-10월 초장: 60-70cm

55. 다알리아 미그논

다알리아는 오래전부터 관상용으로 심어온 초화류이다. 이 품종은 키가 작은 다알리아 종류로 화분용, 정원용 모두 알맞다. 꽃말은 '정열'이다.

파종시기: 6-10월 초장: 40-50cm

56. 디모르포제카

데이지 타입의 화사한 꽃이 피며 저온기인 봄에 정원용, 화분용으로 좋은 식물이다. 햇빛을 좋아하고 너무 습하지 않게 재배한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25-30cm



57. 캘리포니아양귀비

노란색, 하얀색, 적색 등이 혼합되어 피는 키 작은 양귀비로 봄에 꽃을 피운다. 꽃을 많이 피우며 배수가 잘 되고 양분이 충분한 곳에서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6월 초장: 40-50cm

58. 유로크비아(열악초)

하얀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잎은 그 어떤 꽃보다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절화용으로도 이용가능하며 신에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다하여 설악초라고도 불린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60-70cm

59. 60. 안개초 화이트 / 핑크

무수히 많은 가는 줄기에 작은 꽃이 모여 핀다. 봄에 구름과 같이 피는 덩불형의 꽃무리는 매우 아름답고 절화용으로도 매우 좋은 꽃이다.

파종시기: 9-6월 개화기: 5-10월 초장: 60-70cm

61. 천일홍

토끼풀꽃 같은 작은 꽃이 모여서 많은 꽃을 피운다. 꽃색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으므로 천일홍이라고 부른다. 여름에 절화용 또는 건조화로 이용되기도 한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15-20cm

62. 로단세

데이지 모양의 꽃으로 마르지 않아도 꽃잎의 색과 모양이 좋아서 '종이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꽃대는 봉오리일 때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있어 이채롭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10월 초장: 40-50cm

63. 스위트로켓

유럽원산의 주로 화훼용으로 이용되는 십자화과 식

물로 축축한 토양을 좋아하며 꽃은 흰색부터 보라색까지 다양하며 향기롭다.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6월 초장: 70-80cm

64. 이베리스(서양말랭이)

대개 지중해 원산으로서 남유럽, 서부 아시아, 북아프리카에 30종 안팎이 자라고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잎이 가늘고 같은 질감이고 갈라지고 꽃은 향기가 난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25-30cm

65. 리나리아

애기금어초라고도 불리며 잎이 가늘고 꽃은 여러개 피는 듯하지만 만개되면 탐스러운 자태를 뽐낸다. 꽃말은 '내마음을 알아주세요'이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10월 초장: 25-30cm

66. 꽃야마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기름용으로 쓰이는 아마와 달리 화훼용으로 이용되는 아마종류로 500원 동전만한 꽃이 화려하게 핀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45-50cm

67. 로벨리아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손톱만한 작은 꽃이 가득 모여 피며 행잉바스켓에 심기에 아주 적당하다. 자라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주고 햇빛을 잘 쬌어 주어야 한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25-30cm

68. 말로페

무궁화와 같은 아욱과 식물로 꽃과 잎이 크고 꽃수가 많은 아름다운 꽃이다. 재배가 쉬워 가정화단용으로 좋은 꽃이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6-10월 초장: 80-90cm

69. 스토크

작은 꽃에서 라일락꽃 같은 진한 향기를 뿜어낸다. 화단과 베란다창가나 행잉바스켓등에 가꾸어 매혹적인 향기를 즐길 수 있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6-10월 초장: 40-50cm

70. 미모사

신경초라고도 불리며 브라질이 원산지인 관상식물이다. 잎을 건드리면 밑으로 처지고 작은잎이 오므라들어 시든 것처럼 보인다. 밤에도 잎이 처지고 오므라든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6-9월 초장: 25-30cm

71. 분꽃

열대 아메리카 원산이며 증자속에 하안가루가 들어 있어 분꽃이라 불린다. 꽃은 오후에 피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시들고 꽃말은 '수줍음'이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6-10월 초장: 50-60cm

72. 물망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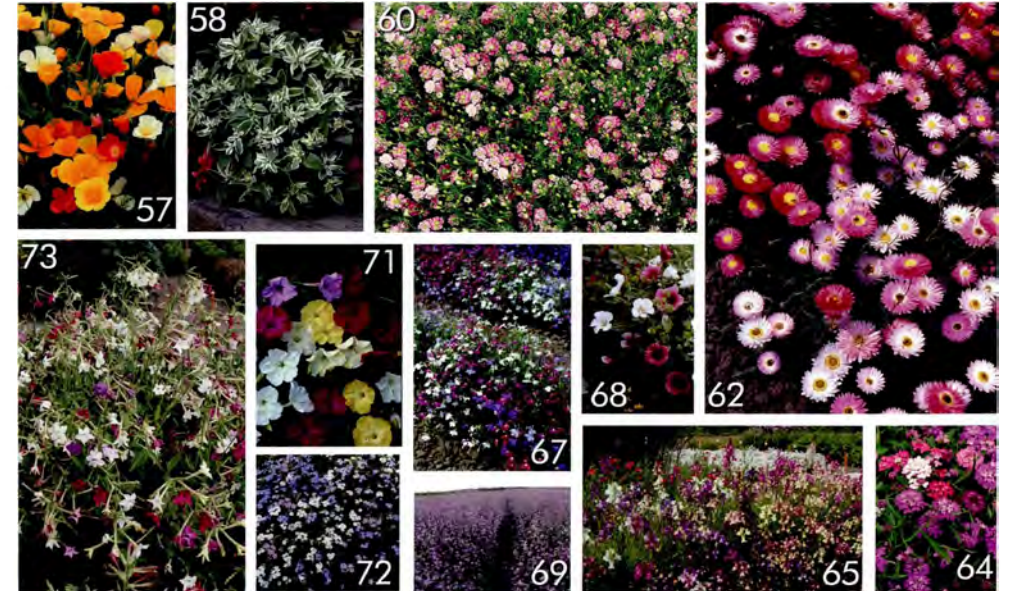
유럽이 원산지이고 관상용으로 심는다. 작은 꽃이 웅기충기 모여서 피고 물망초란 영어의 'forget me not'을 번역한 것이고 '꽃말이'나를 잊지 마세요'가 되었다.

파종시기: 9-5월 개화기: 5-7월 초장: 25-30cm

73. 꽃담배

관상용 담배꽃으로 담배와 꽃과 잎이 유사하나 크기 면에서 꽃은 크고 잎은 작다. 부드러운 색감의 꽃은 은은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60-70cm



74. 니젤라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엘라자베스시대부터 산장이나 정원의 주된 소재로 이용되었다. 잎은 깃처럼 찢겨 갈라지고 큰꽃이 피고 남유럽이 원산지이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40-50cm

75. 오스테오스펠럼
꽃수가 많이 나와 만개하면 다복하고 컴팩트한 느낌을 주고 화색이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세력이 강하고 관상기간이 길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20-30cm

76. 아이슬란드양귀비
키가 작은 양귀비로 추왕, 하양, 노랑색의 색상이 어우러져 꽃을 피운다. 꽃이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인 느낌을 전달해 준다.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6월 초장: 40-50cm

77. 장미꽃양귀비
꽃이 크고 정미꽃처럼 매우 화려한 양귀비이다. 대형의 꽃이 주는 화려함과 더불어 강렬한 아름다움이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꽃이다.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6월 초장: 70-80cm

78. 잉글랜드양귀비
강렬한 적색의 꽃은 그 어떤 꽃보다 화려함을 보여준다. 생육은 강건하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재배해야 한다. 어린 잎은 나물로 이용해도 된다.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6월 초장: 60-70cm

79. 제라늄
정원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꽃으로 주먹형으로 꽃이 모여 핀다. 컴팩트하고 꽃대가 많아 화단용, 플러워 박스용으로 좋은 식물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5-10월 초장: 30-40cm

80. 플록스
생육이 빠르고 강건하며 꽃이 매우 화려하다. 꽃수가 많고 오랫동안 개화를 하기에 분화용, 화단용 어디에 식재해도 좋은 꽃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40-50cm

81. 마라고이데스
앵초과의 꽃으로 꽃대가 올라와서 작은 꽃이 모여 핀다. 잎이 작고 꽃수도 많아 만개하면 풍성해 보이고 지속적으로 개화하여 장기간 감상할 수 있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20-30cm

82. 루드베키아 그린아이즈
이 품종은 꽃 중앙에 그린색 심을 담고 있어 색다른 느낌의 고급스런 이미지가 한층 배가된 루드베키아 품종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50-60cm

83. 사루비아 블루빅토리
파란색의 꽃을 피우는 사루비아 품종으로 길게 피는 꽃대는 여름을 시원하게 해준다. 라벤더 느낌의 꽃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생육도 강건하여 관상기간이 길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5-10월 초장: 40-50cm

84. 스카비오사
긴 가지에 많은 꽃들이 피며 청초한 들꽃 느낌을 전달한다. 서양술채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60-70cm

85. 서양장구채
우리 아생의 장구채꽃과 형태가 비슷하다. 키가 낮게 자라 줄기가 땅과 붙어서 나오며 반구형으로 퍼져나오면서 많은 꽃을 피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30-40cm

86. 한련화
남미 북부 원산으로 덩굴성의 줄기에 등그런 잎이 달린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행잉 바스켓으로 이용한다. 꽃잎은 나팔 모양이 특징이고 이 품종은 여러겹으로 꽃이 핀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30-40cm

87. 베베나 보나리언시스
보라색의 키가 큰 베베나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랜기간 꽃을 피운다. 꽃이 아름답고 꽃수가 많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100-120cm

88. 베베나 나나
작은 꽃이 옹기종기 모여 피는 모습이 매우 귀엽다. 키가 작고 컴팩트하게 자라며 가지 끝에 꽃이 모여 오랫동안 핀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5-9월 초장: 15-20cm

89. 비스카리아
5개의 꽃잎을 가지며 강한 꽃이기에 때문에 고온에서도 꽃색이 바라지 않는다. 꽃을 꺾어 꽃병에 넣어두면 끈적끈적한 수액을 볼 수 있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5-9월 초장: 40-50cm

90. 백일홍
백일초라고도 하며 역시 원산의 식물이며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한다. 백일홍이란 꽃이 100일 동안 핀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꽃말은 '순결'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40-50cm

>> 덩굴식물(Climber)

91. 아시리나
꽃은 하얀 목을 가지며 잎은 토피모양의 송털이 덮혀 있다. 덩굴겨여초라고 불리기도 하며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피는 소형의 덩굴성 식물이다. 색상은 하얀색, 분홍색으로 핀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5-10월 초장: 170-200cm

92. 코베아
종 모양을 하고 있는 큰 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핀다. 꽃모양이 컵과 비슷하고 큰 꽃받침이 있어 컵과 컵받침(cup and saucer)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꽃이 이색적이면서도 아름다워 인기있는 덩굴식물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6-10월 초장: 250-300cm

93. 히아신스콩
꽃이 아름다운 콩과식물로 나비모양의 하얀색과 자주색의 꽃이 줄줄이 달려서 핀다. 자람이 매우 빠르고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7-10월 초장: 250-300cm

94. 95. 96. 나팔꽃 바이올레스타 / 블루스타 / 로즈스타
'모딩글로리'라고도 불리는 나팔꽃은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덩굴식물이다. 꽃은 트럼펫 모양으로 피며 색상은 품종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7-10월 초장: 250-300cm

97. 스위트피
색상이 다양하고 매우 화려한 덩굴식물로 향기 또한 뛰어나 인기있는 덩굴식물이다. 울타리용 뿐만 아니라 포복용으로 이용해도 좋은 품종이다. 키가 30-40cm정도 자라는 작은 품종도 있는데 이는 화분행잉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파종시기: 9-4월 개화기: 5-7월 초장: 170-200cm

98. 미나
일반적으로 꽃이 폭죽모양을 하고 있어 파이어크래커라고도 하며 스페인국기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스페니스프래그라고도 한다. 꽃이 처음에는 적색으로 피다가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어지는 특성이 있다. 시원한 반양지에서 잘자라고 발아는 12시간에서 24시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파종하면 좋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7-10월 초장: 250-300cm

99. 로도치톤
아름다운 종모양의 꽃이 진한 자주색꽃을 피우는 덩굴식물이다. 꽃 중앙에 튜브형태로 빠져나와 이색적인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다른 덩굴식물과 달리 적당하게 자라 작게 유지할 수 있다.
파종시기: 3-5월 개화기: 7-10월 초장: 170-200cm

100. 아프리카나팔꽃
정원의 장식용 식물로 많이 이용되며 결이 아름답거나 바구니에 심어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꽃 가운데 부분은 초콜릿 색상이 도는 짙은 자주색을 띄고 있어 '블랙아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양지나 반음지에 자라고 생육온도는 15℃이상 되어야 하며 잎은 심장 또는 화살모양이다.
파종시기: 3-6월 개화기: 5-10월 초장: 170-200cm



한발 먼저 앞서가는 New 트렌드 "정원용 야생화"

장기개화형 식물부터 잎의 질감이 좋은 품종, 꽃이 화려한 품종, 신개발 품종에 이르기까지 2015년도 트렌드를 미리 따라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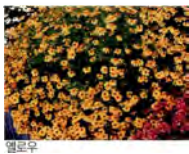
» 코레우리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품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화 로얄티 수출 품종이다. 5월말부터 가을까지 연중 개화하며 화색, 초장, 꽃의 크기,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기호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정원, 도로변 화단, 거리화분 등에 단일 군식하거나 다른 식물과 혼합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분화용으로 매우 유망한 품종이다. 특히 관리가 용이하여 화분에 재배하여 가정에서 분화용으로 이용해도 좋다. 그리고 장기개화 되므로 각종 행사 등의 일정에 맞추어 맞춤형재배(개화일정 조절)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용 식물로 이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드림시리즈 Uri Dream

군식용, 정원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갖추고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장기개화되므로 각종 행사 등의 일정에 맞추어 맞춤형재배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용 식물로 이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옐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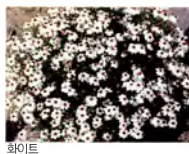
레드



핑크



오렌지



화이트

골든볼시리즈 Golden Ball

노란색계통의 꽃을 5월말부터 피우며 둥그란 구형에 가까운 초형을 가지고 있다. 크게 꽃색의 밝기와 초장에 따라서 품종이 나뉘어진다.



골든볼 26호



골든볼 42호



골든볼 48호

링시리즈 Ring

꽃의 중앙에 꽃무늬가 링을 이루고 있는 품종으로 초형이 구형인 품종(골드링, 루비링)과 일반 형태인 품종(골드링)으로 나뉘어진다.



골드링



루비링



골드링

팅커벨시리즈 Tinker Bell

앙증맞은 아기 천사와 같은 작은 꽃이 모여 핀다. 정원용 뿐만 아니라 분화용으로 안성맞춤의 꽃이다. 황금색 잎을 가진 품종은 잎 자체로도 감상 가치가 뛰어나다.



핑크



레드



퍼플



골드퍼플



골드레드



골드핑크



브론즈 글로브



옐로우 글로브

글로브시리즈 Globe

꽃의 초형이 반구형과 구형의 중간 타입으로 매우 조밀하게 자라는 특징이 있으며 화색과 초장에 따라 품종이 나뉘어진다.

하디시리즈 Hardy

내한성이 강한 품종으로 꽃은 다화성이며 6월부터 늦가을까지 연속개화하고 맑은 노랑색부터 주황색까지 매우 고급스런 색상을 보유하고 있다. 조경용으로 매우 유용한 소재로 군락식재, 혼합식재용으로 좋고 특히 품종별로 각각의 특성이 있어 이들 품종만으로 품종원을 만들어도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꽃이 진후 커팅을 해주어야 2차 개화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고 퇴비를 충분히 해주어야 계속적으로 크고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골드스타
연노란색의 작은 꽃이 조밀하게 모여 핀다. 식물의 형태가 컴팩트하고 안정된 초형을 유지한다.



골드힐
꽃이 피기전에는 잎이 연한 노란색을 띠고 꽃이 아름답게 만개하면서 원상대로 돌아온다.



레온사트
맑고 연한 노란색의 꽃이 매우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해준다. 꽃수가 많고 조밀하게 핀다.



미라
파스텔톤 주황과 분홍이 혼합되어진 고급스런 화색을 가지고 있는 반겹꽃의 품종이다.



하디오렌지
화색이 파스텔톤 연노랑 바탕에 주황과 분홍이 고급스럽게 혼합되어진 품종이다.



하디트리플라
화색이 계절별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랑으로 개화해서 분홍으로 가을에는 다시 주황으로 꽃을 피운다.



하디핑크
진한 핑크색의 꽃은 사람의 사선을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하디골드
꽃이 크고 키가 크며 진한 노란색의 꽃을 피운다.



하디크림
꽃이 크고 키가 크며 맑은 노란색의 꽃을 피운다.

휴케라

외국의 유명 플라워쇼 등에 디스플레이 소재로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휴케라다. 그만큼 어떤 꽃보다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잎이 일품이다. 고급정원의 포인트식물로 좋고 분화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꽃은 5-6월에 피는데 꽃보다는 잎이 좋은 식물 이어서 꽃대를 바로 잘라주면 계속적으로 좋은 잎을 감상할 수 있다. 반음지에서라도 생육이 좋고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한다. 품종에 따라 잎이 적색계열, 녹색계열, 무늬종 등이 있다.



그린



레이셀



스노우



연고



스름



초콜렛

가우라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는 대표종으로 화색이 아름다운 최고의 장기개화형 품종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의 조경 현장에 도입되어 현재는 정원, 도로화단 등에 빠질 수 없는 필수 품종이 되어있다. 건조한 곳, 약간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강건한 품종이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 보급되어 지고 있는데 아래에 소개하는 품종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한 층 업그레이드된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이비시리즈

키가 작아 절대 쓰러짐이 없는 품종으로 봄에 식재하면 늦봄부터 서리가 올때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다. 화색에 따라 품종이 나누어지고 특히 골든트리 품종은 줄기가 노란색을 띄고 있어 밝은 느낌을 주어 꽃 뿐만아니라 식물 자체로도 관상가치가 뛰어난 품종이다.



베이비 핑크



베이비 레드



베이비 골든트리



고추잠자리

꽃, 꽃대, 꽃봉오리가 진한 붉은색을 띄며 고추잠자리가 날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실잠자리

키가 크면서 가는 줄기를 따라 꽃이 주렁주렁 매달려 많은 꽃을 피운다. 꽃은 흰색바탕에 가장자리가 분홍색을 띄고 꽃봉오리는 진한 붉은색을 띤다.



선미

안정된 초형을 가지고 있으며 잎이 적은 반면 꽃대는 길이 많은 꽃을 피운다. 깨끗한 화색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분홍색의 꽃을 가지며 꽃봉오리는 붉은색을 띤다.

큰꼬리수크령

아프리카원산으로 내한성이 매우 약한면이 있지만 꼬리형태의 큰 꽃대는 관상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일반 수크령에 비해 꽃대가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아치형을 이루는 긴 잎의 선이 매우 아름답고 잎의 질감 또한 좋다. 혼합식재, 혼성식재시 포인트식물로 유리하고 대형의 포기는 독립수로도 매우 효과적이다. 가을행사용, 디스플레이용으로도 좋은 신소재이다.



하늘국화

봄부터 가을까지 꽃방석을 이루는 장기개화하는 품종으로 화수가 많고 매우 조밀한 초형을 가지고 있어 분화용으로 안정맞춤이다. 도로가, 화단조성시 군식하거나 혼성식재시 베이스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키가 작고 지피력이 뛰어나 정원의 앞 라인 식물로 적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화단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특히 '금방석'은 진한 황금빛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2015년도 기대가 되는 품종이다.



금방석



블루



애기블



허업



화이트



춘추

초콜릿코스모스

꽃은 적갈색의 초콜릿색이며 또한 꽃에서 초콜릿향이 나는 특성이 있다. 5월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고 여름더위에도 강하고 분지력이 좋아 꽃의 화수가 많은 장점이 있는 식물이다.



대사초 골든팁

잎 전체가 황금색으로 음지를 밝게 해주는 신소재로 다른 대사초와 어울려 이들만으로도 문양연출이 가능하고 침입성이 없어 안전하다. 소나무 아래에서도 잘 자라고 일반적으로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강하다.



이제 정원에 관목이 필요합니다 "정원관 관목" 앞으로 관목은 정원의 필수소재이다. 일상적인 관목에서 탈피하여 신소재 관목들이 정원의 유망한 소재로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것이다.

클레마티스

꽃이 크고 화려한 덩굴식물로 현재 세계적으로 230여종 이상이 있다. 대부분 5월경도에 개화가 시작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일정량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생육이 좋다. 토양은 비옥하고 부식토가 풍부한 땅과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 그리고 이들을 식재할 때는 다른 종류와는 다르게 약간 깊게 8~10cm깊이로 심어주면 토양에서 더욱 튼튼한 줄기를 올린다. 클레마티스는 기어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알맞은 지지대가 필요하므로 펜스, 파고라, 아치, 트렐리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조팝 골든바

조팝나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한 관목소재로 봄에 하얀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여름까지는 황금색, 가을에는 붉게 물드는 단풍이 매우 아름답다. 생활타리용, 경계용, 포인트용으로 고급스런 연출이 가능하다. 생육이 빠르고 강건하며 배수가 잘 되는 양지와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눈분홍질레

생육이 강하고 순백음이 좋아 매우 빨리 자란다. 특히 포도송이와 같은 꽃차례는 마디마다 꽃이 햇빛으로 온통 꽃덮불을 형성한다. 덩굴장미 대용으로 꽃터널, 담장차폐용으로 좋고 독립수로 식재해도 좋은 덩굴식물이다.



매자나무

매자나무속은 우리나라에서도 특산식물이 있는 아주 다양한 종을 가지는 관목이다. 최근에는 잎이 아름다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앞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늘어날 수종이다. 특히 적자색과 무늬가 좋은 종 그리고 잎이 황금색인 종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겨울 가든의 풍성함을 더욱 연출가능하고 떠돌기와 암석가든, 돌메자용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아우레아



핑크퀸



레드로켓

부용 빅스타

키가 작고 꽃이 얼굴 정도의 크기로 크게 피는 대형의 꽃은 정원으로 좋은 관목이다.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고 생육 또한 매우 강건하다.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고 비료를 많이 해주면 6월말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다.



붓데레야



꼬리처럼 길게 피는 꽃은 이색적이며 요즘의 건축정원 형태에 매우 좋은 관목이다. 품종에 따라 화색이 다양하고 대형의 포기는 포인트형 독립수로 유리하다. 또한 도로중앙분리대 화단, 피복지 등에 열식하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시원한 꽃을 볼 수 있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꽃이 많고 색이 좋아진다.



레드 블루 화이트 핑크 블랙-나이트

인동 해오름

인동은 대표적인 덩굴식물이다. 붉은인동, 분홍인동, 황금무늬인동 등 그 품종도 다양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인동은 국내개발 품종으로 잎 전체가 황금색으로 잎 자체로 뛰어난 관상가치가 있으며 가을 단풍도 일품이다. 잎의 색깔이 좋아 벽면녹화용 뿐만 아니라 피복지 등에 지피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황금개나리

황금색의 관엽 개나리로 기존 일반 개나리의 녹색잎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품종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황금색의 노란잎은 최상의 경관용 관목이다. 특히 여름에도 황금색이 잘 발현되고 약간의 그늘에서도 색깔이 잘 발현된다. 그리고 생육이 강건하여 자람이 빠르면 여름에 너무 건조한 지역에서는 잎이 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한다.



병꽃나무

낙엽활엽관목으로 원산지는 한국이며 훌륭한 고급정원수로 각광받고 있다. 꽃이 길다란 병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병꽃나무라 불린다. 생장이 강해서 빨리 자라며 높이 1~2m 정도까지 자란다. 내염성, 내공해성이 강하여 도심의 기후에 잘 적응하며 내음성, 내한성이 강하고 양지는 물론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다.



무늬병꽃나무



자엽병꽃나무



황금병꽃나무

봄 기대하세요!!

100가지 꽃으로의 초대

이제 꽃을 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기만의 꽃을 키워 즐거움과 감동을 스스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 다년초, 일년초, 허브식물, 덩굴식물 등 100종류의 가정원예용 종자 구비
- 소포장(꽃씨봉투)로 원하는 수종을 부담없이 구매
- 기업 홍보용, 그린마케팅용으로 최적의 상품

품종	단가	공급시기	비고
100종	3,000원 / 봉	2015년 2월 20	배송비 별도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다년초 001

이글랜드 양귀비

영어지 정원으로 초대

Nice to see you

정원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생약부위 9-4

꽃씨유기 5-6

가든 종자 100선

봄

향 내음을 전하는 지피식물

'헬리오트로프(*Heliotropium, Heliotropium arborascens*)'

헬리오트로프, 지치과, 다년생 식물이나 내한성이 약해 겨울에는 실내나 온실에 보관하며, 학명은 *Heliotropium arborescens*이며, 속명인 헬리오트로프는 그리스어로 "태양"을 뜻하는 *heilios*와 "회전하다"란 뜻의 *trepein*의 합성어로서 꽃이 태양을 따라 회전한다는 뜻이다.

초장은 45~60cm의 소관목이며, 오래되면 줄기 아래부분부터 목질화되며, 잎과 줄기에 짧고 부드러운 털이 덮여있으며, 장타원형의 잎은 엽맥이 뚜렷이 보이며, 얇아서 쉽게 찢어져 주의해야 한다. 보통 5~9월까지 꽃을 피우며, 15℃ 이상만 되면 겨울에도 개화한다. 작은 보라색의 꽃이 수십개 모여 산형화서로 소복하게 숨덩어리처럼 모여 핀다.

특성 및 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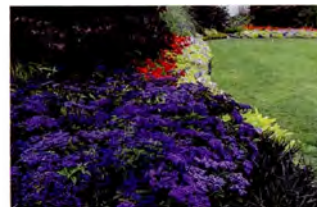
초장은 45~60cm의 소관목이며, 오래되면 줄기 아래 부분부터 목질화되며, 잎과 줄기에 짧고 부드러운 털이 덮여있으며, 장타원형의 잎은 엽맥이 뚜렷이 보이며, 얇아서 쉽게 찢어져 주의해야 한다. 보통 5~9월까지 꽃을 피우며, 15℃ 이상만 되면 겨울에도 개화한다. 작은 보라색의 꽃이 수십개 모여 산형화서로 소복하게 숨덩어리 처럼 모여 핀다.

재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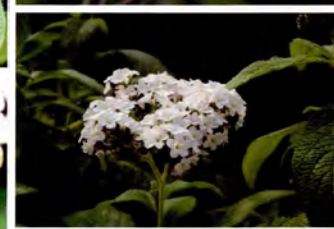
헬리오트로프는 양지와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고온다습에 약하며 특히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재배가 어렵다.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는 잎 끝부분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전체적으로 시들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병해충

와일드 스트로베리는 해충보다는 병에 의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강우 시 잎이나 런너를 통해 곰팡이가 침범해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병반상에 포자가 생겨 무르는 탄저병이 생길 수 있



다. 개화기나 열매가 열리는 기간에 갑자기 시들어서 포기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름철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며 질소질 비료의 과용으로 도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엇보다 병든 식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온 건조한 시기에는 응애류가 발생하나 그리 큰 피해는 없다. 헬리오트로프는 봄철 애벌레와 응애의 피해를 볼 수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 잎이 얇고 연해서 인지 애벌레들이 좋아한다.



천혜의 경관, 융합된 정원공간으로 리모델링

휴식공간을 창조한 정원경관 디자인 Landscape Garden design 리모델링
작업시기 : 2012년 7월 ~ 11월
장 소 : 사천인재니움, 경남, 사천시 곤양면대진리 산 78-1번지내



글/사진 정수진대표
정수조경

최고의 경관 & 조경정원디자인의 융합

LIG 경남 사천인재니움 연수원은 약 3만 여평의 위치에 7,000여평의 건축물은 간담건축 설계사무소가 설계하여 한국 건축대상을 2013년받았으며, 정수조경이 정원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연수원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의 대기업에서도 연수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위상과 건물 내부와 외부에 예술성이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진 건축물과 외부의 아름다운 Landscape Garden Design 을 포함한 종합시설의 연수원으로 최고의 평가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SBS 방송의 드라마 상속자들의 '제국의 학교'로 드라마에서도 인기도가 매우 높았던 계단식 정원을 선보인 곳이다. 계단식 정원은 본래 차 나무식재, 장미정원으로 기획되었으나 45도 경사진 자연상태를 살리기 위해 3차변경 디자인을 계단식 정원으로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사천대교가 지평선으로 보이는 정원공간에 계단식으로 인장감을 주며, 각 장소에 벤치를 삽입하여 디자인하여 어느 방향에 앉아서도 풍경을 누리며 파노라마식 자연의 경관을 맞이하는 장소로의 디자인도입

우리나라의 외부 정원경관디자인(Landscape & Garden Design)의 조화와 균형의 미는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정원의 융합을 위한 제 2, 제3의 정원 작업을 시도하며 경비 면에서 더 많은 시간과 투자 비용이 부담이 되므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외부적 환경에 문화를 융합하는 작업을 소유주는 가장 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귀띔하고 싶다. 사천 인재니움의 경우도 2012년 7월 정수조경에게 정원의 일부분을 공사하는 수주의 기회를 주었으나, 건축물과 주변 정원 중 약 3000평의 공간을 방문자나 연수생 등을 고려하여 '가족의 품'을 느끼는 정서적 공간 제공과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낮과 밤에도 휴식공간을 전달하려는 배려로 정원공간을 재조명하여 보다 아늑한 연출을 위한 작업 시간이었다.

연수원의 위치는 먼 시야 안으로 약 2.2km의 사천대교가 보이고 지족해협만으로 둘러싸여 밀물, 썰물 교차하며 자연이 창출하는 곤양천과 광포만 갯벌의 염생식물의 시각적 색상의 연출은 하루에도 각양각색의 자연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바다의 전경을 끌어안고 있는 가히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신라말 고운 최치원선생이 "남녘 땅에서 경치가 빼어난 곳" 칭하며 남일대라는 명칭의 해수욕장도 유명하다.

믿음과 신뢰에서 창의력이 최고의 공간 연출로

정원공사에 중요한 것은 공사발주 후 두 가지 면을 숙지해야 한다. 하나는 공사를 맡긴 소유주와의 교감이며, 공사가 끝난 후 그 공간연출의 시설물을 실제 이용할 방법의 실용성이 필수이다. 공사 전 과정을 통해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중요시하며, 소유자의 의도를 깊이 경청하고, 작업 책임자로서 오너분과 관리하는 팀들과도 중요한 내용을 풀고 공유하며, 재창조하는 과정을 재점검하여 공사 후 불평과 원망이 없는 공간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두 짝으로, 이 공간의 주인의 대상은 방문객과 연수생들이므로 공공건물과 문화 예술이 도입된 가치가 높은 사천 인재니움의 이용도를 즐기는 공간으로 이어가며, end user 가 즐길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한다면 더 높은 고부가가치의 명소가 되며, 함께 교감을 이루는 작업장은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늘 탄생한다



사천 인재니움 연수원의 리모델링 주요공사

1. 수경정원의 연못 및 팔각정 주변
2. 야외무대 및 기타시설
3. 맞이마당
4. 조경, 음향 및 야경 경관의 종합예술디자인 연출



수경정원내 정원문화의 융합을 시도

팔각정 주변의 수경정원과 주변 식재의 디자인을 증점적 리모델링 하며, 산책로와 자연 친화적 연못정원 그리고 현대적 디자인의 주변 공간과 자연을 융합하는 자연의 도입을 이루는 디자인에 테마를 붙여 넣는 것이다.



프랑스, Monet's Water Garden

연못 디자인은 프랑스 미술가 모네가 자신의 수경정원에 한 폭의 수채화를 완성하듯 자연과 동화하는 모네의 수경정원을 테마로 고려하였다. 프랑스 Giverny, Monet's Water Garden은 일본수경정원의 자연적 기능(natural function)은 도입하지만, 식재는 사계절 식물이 계속 이어가는, 한 폭의 그림이 연출되는 미학적 예술가의 혼이 화폭에 담을 공간을 정원 안에 자연의 풍광 연출을 완성한 수경정원이다. 그리고 푸른 난간의 다리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연출되어 미적 요소가 매우 강하며, 사계절 세계의 정원디자이너와 정원애호가들이 줄이어 방문하는 유명한 명소의 정원이다. 전체적 디자인개념 확충 후 부분적으로 섬세한 부분은 미술전공과 정원공간연출의 전문자와도 공동작업도 계속하며 마음속에 소재를 그리며 작품구상에 몰입했다. 공간에 story telling이 정립되면서 연출할 소재들이 뇌리에 물려오며 나무와 돌의 조합과 짜여진 정원의story는 공사가 완성한 후 open하며 창조적 작품 연출을 정원공간에서 즐기고 있다



리모델링 전 연못(상,하)



연못디자인의 구성은 큰 돌은 오솔길, 연못과 새로 식재한 화단 언덕을 자연적으로 약 20미터 쌓아 올려 평지 공간 위에 엄선된 소나무, 백일홍과 연계된 연출로, 자연광선(각5톤)을 재배치 하였고, 방문객은 바다의 파노라마뷰를 감상하는 풍광이 뛰어난 명소로 탈바꿈하는 작업이었다.



연못정원에도 거대한 크기의 돌, 키 15미터의 회화나무, 지름이 50센티되는 거대한 백일홍 3주, 우람한 소나무 10여그루들이 들어와 자리 잡느라 중장비가 큰 역할을 했다.



화산석을 쌓아 40미터 길이의 물이 흘러 만나는곳은 기왓장을 이어붙여 제주도 돌함자박으로 낙하하는 자연연출을 시도.



전문가의 손길은 식재로도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소나무식재 주변은 남촌, 수국등으로 평지화 후 들어난 시멘트 벽면전체를 가리우며, 그위 최상단 자리에 전통적 미의 우아한 색상의 연핑크 철쭉(키 1-2M)으로 군락을 주어 봄을 알리는 첫 장면이 시작되며, 하단부는 계단식 식재 개념을 넣었다. 연못 주변은 다양한 초화류로 계속 이어가는 다년생의 식물로 선정하였다.

역사적 전통미, & 상징성 정원문화로 연출하다

팔각정 주변은 이조 시대 석탑과 팔각정 계단 입구 양쪽에 고풍스러운 몰화 두 개도 구입하며 전통 한옥 팔각정을 자연스럽게 연출하였다. 회화나무 위치를 정하여 연못정원 초입에 심으며, 원산지가 중국인 회화나무 Styphnolobium japonicum 는 선비나무로 잘 알려져 있고 안동, 예천, 경북궁 등 왕실도 선호한 수목으로, 귀한 선비에게 하사한 의미 깊은 수목이다. 돌 옆에 백화등(봄에 흰 꽃에 향기가 좋음) 고목을 한쪽 반대편에 키가 작은 분재형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 돌과 나무의 가까운 친구 같은 수채화 풍경을 연출 하였다.

호랑이 표피문형을 자아내는 가부리형(비스듬이 기울어진)는 귀품이 강한 소나무의 위치를 잡고, 회화나무 연못 반대쪽에 심어 아름다운 자태를 최대한 살리고, 물 옆에 분을 앉히고 주목대는 연못 위로 흐르고 솔잎 부분은 연못 위에 안착시켜, 정원의 디자인 연출은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했다.



원래 명목은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가치를 인정해주는 법이다. 연못 정원에 다들 제각기 자태를 뽐내는 귀한 소나무들이 왔지만 이 소나무가 세월이 백 년을 흘러도 날이 갈수록 가성 그 가치를 사랑 받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가치를 품은 소나무로 남을 것이다.





호랑이 수피의 소나무의 위상이 연못정원과 주변의 포근한 색상의 식재는 '가족의집'이란 공간연출로 완성. 산책을 하며 집안 틀 안을 걷는 듯한 편안함의 공간으로...

경사면을 설계단식으로 정원의 자를 눈에 띄지 않도록 디자인도 하여 편안하게 사선대교의 멋진 노출풍경을 따라야 하므로 노출한 자연의 정원을 공간, 리모델링, 정원변지의 위치도 개인 의 공간을 충분히 갖도록 배려한다.



조명&음향이 정원의 매력적 요소를 더하다.

정원 안에 마무리 디자인 작업은 스프링 클러시시스템을 하여 물 관리의 타이머를 설치의 장치로 관리하는 것이며, 야외조명과 음향시스템의 노하우는 조명의 초저전압과 LED설치등으로 아주 경제적이며, 미국 제품으로 야외 조명기술자가 예술적인 야경을 은은하며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기법장치이다. 야외음향의 전 시스템 장비는 팔각정 밑에 설치하고 텐마크제 스피커는 실제 rock같이 생긴 하이파이급 제품으로 방문객이 전혀 모르게 여기저기 풀, 나무, 돌 사이에 전구간 배치하였다. 팔각정도 전기등이 노출되지 않게 잘 배치되어 낮과 저녁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탄생하였다. 물이 폭포같이 흐르며 제주도 자연석을 통해 연못에 뿌려주며 여러 방향에서 나무와 팔각정 주변의 연못이 저녁 조명에 비추어 주면서 마지막 첫 연못의 야경을 탄생시켰다

작업후 소리와 조명의 완성품에서 희락

작업 후 축하 파티를 베풀어준 시간이 도래하며, 함께 수정정원으로 가까이 할 때 연못이 가까워 질수록 노랫소리와 물 흘러내리는 소리와 팔각정에 가까이의 초화류의 흔들림, 연못 위에 새로 심어놓은 불빛 아래의 나무들의 연출 모습과 야경의 완벽함. 유명한 미국 가든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남겼다. "정원은 가족을 모이게 하고 친구들의 자랑거리로 자리 매김한다." 인간의 본능은 자랑하고 싶어한다. 정원 안에 자연을 도입하는 작업을 하는 나의 바램은 영국 정원 문화의 발상이 방문객의 행렬도 문화사업으로 연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정원문화의 정신이 이어가기를 정원 디자이너로서 바란다. 글을 마치며 동료로서 함께 작업한 강혜주 디자이너에게도 감사한다.



소나무와 회화나무의 위대함은 야경 불빛밑에서



빛이마당사: 조명과 함께 야외무대로 사용되는 이 곳은 낮에도 예술적 공간장소의 가치를 발한다.



빛이 마당과 조명으로 탈바꿈한 음악무대의 전경. 2013-2014 국제제즈페스티벌

정수조경(주)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JUNGSOO LANDSCAPE CO.

(주) 정수조경

자연의 공간을
자연으로 디자인한다

개인주택 · 기업빌딩 · 공공장소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146-10

tel. 02.2226.7515

www.jungsoowon.com

모나코(Monaco)의 겨울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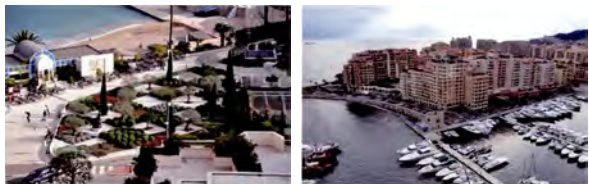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개설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영화 속 장면 같은 모나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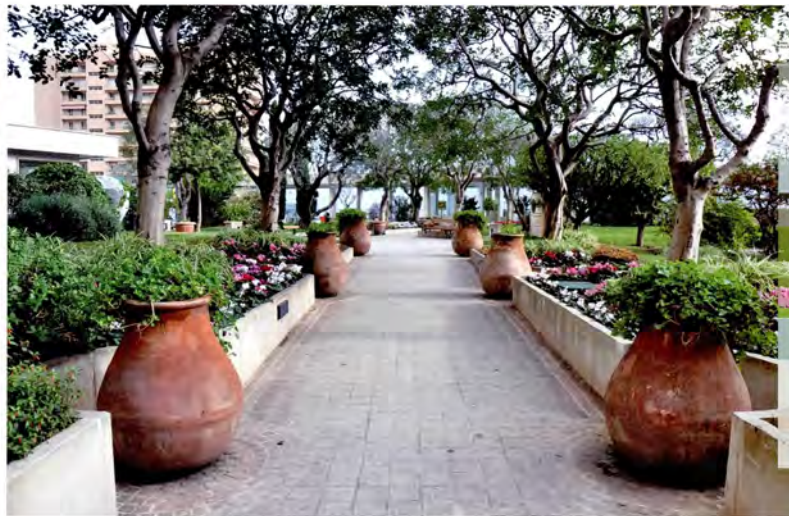
지중해기후에 대한 선망인지, 전생에 지중해 부근에서 많이 살았던 탓인지, 아니면 부유한 유럽인들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모습에 대한 부러움 때문인지, 프랑스나 독일을 가게 되면 항상 지중해로 가고 싶었다. 90년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니스로 내려와 니스에서 바닷가를 따라 모나코로 가는 여행열차를 타고 창밖으로 파란 지중해와 눈부신 햇살, 그리고 조용한 바닷가에서 쉬는 사람들을 보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었던 적이 있었다. 하얀색 요트로 가득 찬 모나코 항구에서 언덕 위의 카지노로 올라가다 보니 요트에 자선파티가 있다며 화려한 이브닝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미남 미녀들이 고급 오픈카를 타고 내려오는 행렬을 보았고 마치 영화 속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난 어느 해 학생들을 데리고 방문한 모나코는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동안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고 부유한 나라로 진입하게 되어, 그 예전에 느낀 한국과 유럽의 격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게다가 나이 탓인지 예전과 같은 환상적인 느낌을 받진 못했다. 그럼에도 기회가 있으면 모나코



를 방문하였고 3년 전에는 겨울 2월에 모나코를 갔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몇 개 박람회를 보고 독일의 남은 박람회를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니스로 내려갔다.



사실은 모나코로 가려 했으나 호텔비가 너무 비싸 적당한 호텔을 구할 수가 없었다. 니스에서 버스를 타고 모나코로 바다를 따라 가는 그 길은 예전의 기차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운치 있었다. 니스에 머물면서 바닷가 길을 따라 생폴, 칸느, 그라세 등과 함께 여러 번 모나코로 갔던 것 같다.

모나코는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왕궁과 왕궁 아래 바닷가에 부유층들의 빌라가 있고 호화스러운 요트가 정박되어 있으며 바닷가를 따라 작은 집들이 들어서 있다. 바닷가 도심 건물 대부분엔 옥상정원이 만들어져 있고 따뜻한 겨울이라 녹색의 식물들과 특히 지중해기후의 은녹색 잎을 가진 식물들이 가득 심겨져 있었다. 더더구나 카지노 앞의 정원을 비롯해 여기저기에 노란색 미모사(Acacia dealbata) 꽃이 피어 있고 세인트 마틴 정원에는 2월인데 연보라색 로즈마리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니스 가까이 있는 그라세(Grasse)의 향수 회사들이 여러 곳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프레고나르도(Fregonardo) 회사가 가장 유명하다.

지나가다 보니 이 회사의 광고 사진에 미모사꽃이 들어 있다. 미모사의 꽃향기를 맡지 못했지만 미모사 꽃은 섬세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자료가 보인다. 독일로 돌아오니 꽃시장에 미모사가 철화로 팔리고 있다. 온실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남부에서 보내왔던 것 같다.

모나코는 대양 기후와 습한 아열대기후의 영향을 받아 따뜻하고 건조한 여름과 온화하고 비오는 겨울의 지중해성 기후로 한국과 비교하면 덥지도 춥지도 않으나 강수량은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최고온도(℃)	12.3	12.5	14.0	16.1	19.4	23.0	25.8	25.9	23.8	19.9	16.1	13.4	18.5
평균온도(℃)	10.2	10.4	11.8	13.9	17.1	20.8	23.5	23.7	21.6	17.8	14.0	11.4	16.4
최저온도(℃)	8.1	8.2	9.6	11.6	14.8	18.5	21.2	21.5	19.3	15.6	11.9	9.3	14.1
강수량(mm)	82.7	76.4	70.5	62.2	48.6	36.9	15.6	31.3	54.4	108.2	104.2	77.5	768.5

※년도 자료인지는 불확실

이러한 기후의 영향으로 열대식물과 사막의 선인장까지 자라고 있는데 많은 종류의 다육식물과 유럽부채야자(Chamaerops humilis)를 비롯한 야자류, 위성류, 미모사, 동백, 오렌지 나무 등이 있고 프리털라리아(Fritillaria involucrata), 오렌지 백합(Lilium bulbiferum) 등은 이곳이 자생지이다.



모나코의 관광 안내 자료에 있는 방문할 만한 정원으로 아래와 같은 정원이 있다. 예전에 가 본 곳이고 겨울이라 아래 정원을 다 둘러 보진 않았고 그저 여기저기 발 닿는 데로 다녔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원과 상관없이 모나코의 옥상정원은 영국 첼시플라워쇼의 출품작에도 언급될 정도로 일상적이다. 모나코는 산과 바다 사이의 좁은 공간에 형성된 도심이 다 보니 산에서 바닷가 건물의 옥상이 흰히 내려다보인다. 풀장까지 있는 고급스러운 옥상정원에서부터 화분으로 가득 찬 평범한 옥상정원도 도심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바닷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주택의 작은 정원들과 주렁주렁 달린 오렌지 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거리도 있다. 지나다 본 작은 호텔 입구에는 버티칼 가든이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모나코의 볼거리에 식물과 정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적인 정원 The Exotic Gardens	다육식물 중심의 정원
앙드레네트 공주 공원 Princess Antoinette Park	입구에 부겐빌레아로 웅장한 커튼이 만들어져 있는 놀이공원으로 예전엔 모나코의 선조들이 일요일에 모이는 장소였다.
카지노 정원 테라스 Casino Gardens and Terraces	카지노 언덕 위의 작은 아프리카 정원 옆으로 잔디와 웅장한 분수가 있는 프랑스 스타일 정원과 언덕 아래 햇빛 가득한 테라스
일본 정원 Japanese Garden	
세인트 마틴 정원 St Martin Gardens	야생식물의 번성 환경을 제공해주는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의 공원 같은 정원
퐁비예유 공원과 그레이스공주의 로즈 가든 Fontvieille Park and the Princess Grace Rose Garden	퐁비예유 공원 내 그레이스 공주를 기리는 장미 정원
동물원 Zoological Gardens	



맑고 깨끗한 것만 정원에 담고 싶었던 양산보의 ‘소쇄원(瀟灑園)’



글/사진 김 홍 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주)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우리공설길잡이
<http://blog.naver.com/hongdolry>

‘담양 소쇄원’을 맞이하기 앞서...

우리꽃을 사랑하는 가든인 구독자 여러분, 2015년을 힘차게 시작하시며, 한 해 시작과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 둘 이뤄 나가시길 바라며 전통정원과 정원에 심겨져 있는 꽃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월호에 ‘정원을 읽는 새로운 시각: 기호학’ 내용이 생소하며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호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형식(style)과 대중들의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contents)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형식과 내용이 잘 지켜져 나갔을 때 시대를 뛰어 넘어도 잘 계승되고 소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외 여행 중 방문 정원을 체험하며 관련된 신화나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쌓아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통정원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요. 정원 관련 전공자나 여행을 즐기는 분들을 제외하고 국내여행 중에 전통정원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전통정원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의 관계도 알아보고, 직접 답사하면서 어떻게 정원을 이해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면 우리 땅에 만들어진 우리의 전통 정원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별서정원을 독자들과 함께 다녀보면서 정원 문화를 체험하고 싶지만 당장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은 뒤로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담양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정원, 영양 서석지를 대상으로 옛 정원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쇄원안내도, 소쇄원목판본(1775)

‘맑고 깨끗한’ 담양의 소재원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위치한 소재원은 자연과 인공을 조화한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별서정원으로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절의가 담겨져 있는 정원입니다. 소재원은 양산보라는 인물이 조성했는데 이 정원을 소재원이라 한 것은 그의 호(號)인 ‘소쇄옹(澇翁)’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쇄’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원은 1755년(영조 31년)경에 하서 김인후가 소재원 경관을 바라보며 남긴 48편의 시(詩) 즉, 「소재원사십팔명」에서 그려지는 경관을 목판 그림으로 옮긴 「소재원도(瀼園圖)」가 남아있어 옛 소재원의 경관을 추정한다. 목판본을 통해 소재원의 구성 원리나 각 공간별로 심겨진 수종이나 조경 요소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재원은 목판의 그림처럼 복원되어 있지 못하지만 소재원 입구에 대나무 숲, 제월당, 광풍각, 대봉대라는 건물과 담장, 두 개의 네모난 못

(塘, 물을 가두어 두는 곳), 매대(매화를 심는 단) 등만 남아 있어 조선중기의 소재원과 완전히 일치되는 정원의 모습은 아니다. 몇 백년 전에 심겨진 나무와 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겠지만 지금 소재원은 모습은 최근까지 계속 복원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양산보가 ‘남에게 팔거나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당부 를 지켜 아직도 그 후손들이 명맥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산보 절친인 하서 김인후가 지은 「소재원사십팔명」 중에서 24수가 식물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개 시에 나타나는 식물은 대나무, 매화,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국화, 조릿대, 창포, 사제화, 복숭아나무, 오동나무, 벽오동, 버드나무, 연, 순채, 배롱나무, 파초, 단풍나무, 치자나무 등 19종의 조경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재원대나무숲



소재원대나무숲



소재원대나무숲

소재원을 작정하게된 양산보의 자연 속 귀화사상

소재원을 조성한 양산보(梁山甫1503~1557)는 1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서 정암 조광조(조선시대 중종 임금 때 성리학자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려 했던 정치가)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17세가 되던 해에는 과거 급제했으나 그때 기묘사화가 일어나 그의 스승인 조광조가 유배당한 뒤 사약을 받아 죽게 되고, 본인도 과거시험에 합격은 했으나 정치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출세에 뜻을 버리고 고향인 담양에 내려와 자연을 벗삼아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정원으로 만들어 한평생 자연에 묻혀 지냈다. 소재원에서의 식물은 단지 즐기고 구경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생리(生理)와 형태에 따라 각각 상징성을 지니므로 양산보의 심상(心象)을 빚어 표현하는 매체가 됩니다. 더군다나 한양에 올라가 자신의 스승과 함께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한 번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남은 여생을 초야에 묻혀 은일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사상과 삶의 철학은 식물에 은연중에 나타나는 전달체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경관이나 사물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표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1. 소재원 입구의 대나무숲

맑고 깨끗한 기운은 속세에서 느낄 수 없고 산수와 더불어 살면서 마음을 비울 때 얻어지는 것인데 양산보는 소재원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대나무 숲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대봉대와 벽오동

소재원 정원 초입의 대나무 숲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담장이 있고, 그 담장 옆에 ‘대봉대(待鳳臺)’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 초정이 있습니다. 대봉대 초정은 새로 복원한 것이고 이 옆에 심겨진 벽오동은 봉황이라는 상징적인 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봉황은 맑은 아침 이슬과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오동나무 가지에 깃들여 태평성대에만 날아온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양산보는 그가 기다리는 세상, 양산보가 맞이하고 싶은 임금님을 빚대어 봉황이 기거하는 벽오동 나무를 심고, 봉황을 기다리는 곳(待)으로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3. 애양단과 동백

대봉대를 둘러보고 담장을 따라서 소재원 안쪽으로 더 들어서면 <애양단(愛陽壇)>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담장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하서 김인후의 「소재원사십팔명」 중에서 47번째에 ‘양단동오(陽壇冬午)’라는 시를 따서 송시열이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소재원의 계류는 얼어도 이곳 애양단은 햇볕도 잘 들고 눈은 모두 녹는다고 하여 겨울에 빨간 꽃을 피우는 동백을 심었습니다. 계류는 음(陰), 이 단은 양(陽)으로 하여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4. 오곡문과 계류

대나무숲, 대봉대, 애양단을 지나 제월당, 광풍각 영역으로 가려면 소재원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계류를 건너야 합니다. 이 계류에는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고, 이 오른쪽에는 계류의 상부를 날아서 매대 주변까지 이어지는 담장과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오곡문(五曲門)’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5. 계류와 석창포

힘차게 흐르는 물살을 담은 계류 주변에는 창포를 심어 물소리와 함께 창포의 향기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창포 외에도 자미(백일홍), 지당(연꽃)에는 연꽃 등 향기나고 다양한 색들을 뽐내는 식물들을 계류 주변에 심어 속세를 떠나 정원에서 자연의 고적한 맛을 느끼고자 했던 것입니다.

6. 매대와 긴 담장

오곡문을 따라 계류에 설치된 외나무다리를 건너면 매화를 심어 가꾼 매대(梅臺)가 있고, 매대 뒤 높은 곳에 위치한 담장에는 ‘소쇄처사양공지려(瀼澇處士梁公之廬)’라는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며 초야에 묻혀 지내던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의 송시열이 쓴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매화나무의 동산인 매대가 있습니다. 매화는 옛 선비들이 정원 속에 즐겨 심고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를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선각자 또는 지조와 덕을 기르고 성장하는 대상으로 여겼기에 제월당 바로 곁에 두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진 : 대봉대에서 내려다 본 계류일대 지당과 배롱나무



(사진: 소재원대봉대와완전케임거전벽오동)



(사진: 소재원대봉대와완전케임거전벽오동)



오곡문과 계류



(사진 : 대봉대에서 내려다 본 계류일대 경관, 소재원 계류 주변 경관)

RHS

햄튼코트 팔라스 플라워쇼 준비현장을 가다.



글, 사진 최지현 가든디자이너
가든스튜디오 알리움 대표
Writtle College, University of Essex MA garden design.

영국왕립원예협회 RHS (Royal Horticultural Society)에서는 매년 2월부터 늦가을까지 다양한 형태의 플라워쇼를 주관한다. 영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RHS첼시플라워쇼는 2013년 10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이 쇼 외에 런던남부에서 열리고 2번째로 큰 플라워쇼라고 할 수 있는 RHS 햄튼코트팔라스 플라워쇼 (RHS Hampton Court Palace Flower Show)가 있다. 첼시플라워쇼보다 좀 더 실험적인 디자인의 정원이 전시되고 젊은 디자이너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운이 좋게도 2012년, 가든디자이너 줄리엣 서전트(현 영국 가든디자이너 협회장)와 함께 인턴생활을 하면서 동료 가든디자이너인 Robert Kennett(로버트 캐넷)의 정원 Las Mariposas (Hopes of a Nicaraguan girl, 니카라과 소녀의 희망)에 식재 참여하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 플라워쇼기간이 아닌 시공 및 준비기간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Conceptual Garden

로버트의 정원은 여러 쇼가든 부문 중 컨셉츄얼가든 (Conceptual garden_정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부문)에 출품 되었다. 일반적인 정원 요소 벤치, 피코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작품 특성상 독특한 설치물과 식물의 조화가 돋보였다. Las Mariposas는 스페인어로 나비를 뜻한다. 이 디자이너는 중앙아메리카의 한 나라인 니카라과의 여성들이 성적 폭력을 당하고 정치, 법률로써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자유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 이 컨셉가든을 진행하였다. 핑크색의 박스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나비가 갇혀있고 그 나라 기후에 맞는 열대 식물들이 배치되었다.



[완성된 정원 Las Mariposas (Hopes of a Nicaraguan girl, 니카라과 소녀의 희망)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라스와 수레국화가 흔들리는 정원

외부의 공간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그라스 스티파 테우이시마(Stipa tenuissima)와 수레국화(Centaurea cyanus) 딱 두종류만 식재되어 있다.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식재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로버트는 식재 도면을 보여주면서 플랜팅디자인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디테일한 식재 배치와 수량파악까지 하나하나 그려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 화단은 플라워쇼 기간 바람에 그라스와 수레국화가 흔들리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다.



[내부에 갇혀있는 나비]



[식재 참여모습과 마무리 중인 가든디자이너 로버트와 줄리엣]

[아랑조끼를 입고 작업중인 사람들]



[플라워쇼 기간중의 식재모습. 바람이 느껴져 자유의 의미와 더 잘 어울린다.]



바람과 자유의 어울림

처음 이 준비현장에 들어섰을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장에 있는 모든 준비요원은 아랑조끼와 안전화 착용이 필수였다. 작은 거지만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

상상의 즐거움

가든쇼이니만큼 막대한 양의 꽃, 나무가 준비되는데 그 과정조차 인상 깊었다. 운송 중에 꽃이 상해 들어오지 않도록 선반으로 칸을 나눠 들어오는데 막대한 양이니 만큼 카트에 실려왔다.

식재 상·하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 짐작해본다.

각 정원 앞에 컨셉에 맞게 배치된 꽃들을 보며 각 정원의 식재컨셉을 상상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붉은 잎과 꽃을 가진 식물이 준비되었다.]



[위 정원의 완성된 모습, 파란문과 푸른 계열의 식재가 돋보인다.]

미완성의 즐거움

항상 완성된 모습의 플라워쇼를 보다가 준비기간의 뒷모습을 알게 되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 각 정원에 충분한 작업공간, 서로 방해 안 되는 차량동선, 식재관리 모습, 안전을 기본으로 다루는 의식들은 우리나라 플라워쇼, 가든쇼 발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2013년에 1회를 맛았던 코리아가든쇼, 한평정원 페스티벌 등 많은 가든쇼에서 참고해도 좋은 모습이라 생각된다.



[위 식물들은 선과 악을 표현하는 조형을 주위에 회색과 어둡고 붉은색의 식물로 식재되었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다양한 문화의 나눔이 있는 정원 “꽃마루” 김영재

글 사진 우정아



고양시에 위치한 김영재씨 정원은 1층 100여 평에 옥상정원 25평, 실내에 소품으로 이루어진 미니 정원들이 다양하게 조성된 곳이다. 1977년 터를 잡을 당시에는 시골의 허허벌판 집들도 드문드문 있던 곳에 400여 평의 정원을 만들어 가꾸었던 것이 시발점이라 했다. 처음에는 넓은 곳의 관리가 어려워 꽃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도 정원의 느낌이 나지 않아 고민 끝에 울타리 목으로 개나리를 선택하여 300m를 조성해 놓으니, 봄이 되면 노란 꽃에 반한 동네 주민들과 가끔 방문하던 회사 동료들이 즐겨 찾는 사랑방이 되어 개나리 집이라 불리며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한다. 지금의 정원은 1989년 고양시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시 만들어진 곳이라 했다. 개발이 진행될수록 주위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정원의 채광조건이 나빠지면서 식물들이 고사하거나 퇴화되어 큰 나무만이 살아 남아, 일부 채광이 좋은 100여 평만 제외하고는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지금의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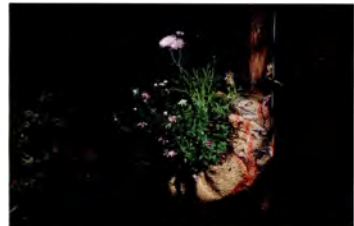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꽃마루 원예 연구회

꽃마루 사랑방은 식물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2008년 푸르미로 시작한 조경가든 대학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녹색환경조성 및 나무 심기 소외계층의 조경지원사업, 녹색환경 관련 자원봉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 원예 관련 일자리 창출, 견학, 마을 텃밭 가꾸기, 화단 가꾸기, 어르신과 함께 하는 꽃 심기 체험, 공원 화단과 텃밭 관리 등 배운 것을 자기만의 것이 아닌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1층 정원은 건물과 집 사이로 사랑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메타세쿼이아, 매실 나무, 미국산딸나무, 단풍나무 등의 고목들과 주목,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 철쭉, 서양철쭉들이 매발톱, 구절초, 복수초, 핑의 다리, 핑이눈, 마삭줄류, 창포류, 핑의 비름, 부처손, 사초류, 아마릴리스, 상사화, 수선화, 톨립, 무스카리 등 야생화와 귀화종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옥상 정원은 화분으로 꾸며진 실외 정원과 비닐 하우스로 만들어진 온실 정원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원예인들의 모임에 식물 실습 재료를 자급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안 되는 열대, 아열대 식물 위주로 자카란다, 고사리류, 서양난, 동양난, 다육식물, 선인장, 배풍등, 자스민류, 대문자초, 등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자카란다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흔히 가로수로 많이 심겨지고 있는데, 뽕나무와 똑같이 꽃이 먼저 핀 후에 잎이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라색의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서도 길을 아름답게 물들여 인기라고 한다.

실내는 출입구 옆과 계단 옆으로 소품과 함께 꽃이 아름다운 식물 위주로 화분에 식재 되어 자라고, 건물 내부에는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사랑방의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



민간 친목모임과 해외 문화교류 활발

조경가든특화과정 위탁교육, 정원박람회와 고양시 꽃 박람회 다수 참여, 한일 꽃문화 교류 등 봉사하는 것과 함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민간 친목모임으로는 보기 드물게 체계적인 운영과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으로 모임을 탄탄하게 굳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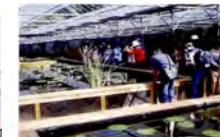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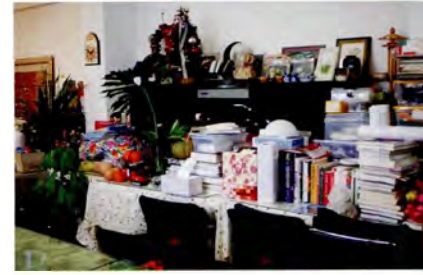
또 시, 음악, 미술, 공예 등 다양한 문화를 정원문화에 접목해 시연해 보임으로 복합적 문화 예술을 실현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어 새로운 정원문화의 장을 여는 개척자로도 일조를 하고 있다

“자연과는 또 다른, 정원이라는 존재감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는 말이 필요 없는 소통인 것 같다.

식물이라는 공통적인 화제를 가지고 만나는데 이들은 정원을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 그 눈으로 자기만의 아름다움 보다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정원 안에서 다른 여러 문화들을 접목하여 즐긴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리라 생각된다.”



수직정원, 벽면녹화, 인공구조물 녹화 최고의 기술은 세 번의 겨울을 내와야 한다.

수직정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수직정원의 대표적 선두주자는 단연 수직정원의 대명사인 벽화수이다. 수직정원 벽화수는 일반적인 벽면녹화용 제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품은 주로 흙을 담은 그릇과 같은 용기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하게 된다. 그것은 식물이 자라는 밥그릇이 한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밥그릇이 커면 야 좋지만 벽면에 메달 수 있는 용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런 제품은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물과 양분의 유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수직정원의 기술력은 겨울을 세 번은 나뉘어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직정원 벽화수는 따로 그릇이 없다. 토양만이 있을 뿐이다. 원하는 벽면 전체가 썩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 자연 상태의 토양과 같은 것이 식물의 뿌리를 한정하지 않고 또 수분의 고급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심장인 서울의 하늘아래 실내가 아닌 건물 외부에 시공되어 3년을 넘긴 기술력은 오직 벽화수가 유일하다.

더욱이 벽화수는 3년이 아니라 이미 6번의 겨울을 넘기고서도 아주 아름다운 수직의 정원을 연출하고 있다는 데서 역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의 기술력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수직정원 벽화수
벽화수주식회사
전화. 031.634.7990



남산 1호터널, 인천교육청, 인천남동구 논현주공아파트, 동림 아이원 아파트, 한남IC, 해남 공영주차장, 부산 남구 방음벽, 부산 수영구 교차 하부, 송파구 중앙분리대

수직정원 벽화수의 겨울나기 기술력이란?

식물생육에 최적화된 토양의 물리력(특허 제 10-0807285호) 벽화수는 펄라이트, 코코피트, 제올라이트, 피트모스 등 유, 무기물을 섞지 않는 섬유가 바인더 역할을 하고 100℃ 이상의 열로써 융착하여 완벽하게 소독이 되어 출하, 시공된다. 특히 식물의 뿌리가 가장 살기 좋다는 토양입자 50%, 공기층 25%, 수분층 25%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겨울에도 관수가 가능한 시스템(실용신안 20-2010-0003102번)

벽화수의 관수기술에는 특별함이 있다. 일반적인 관수시스템은 주로 파이프 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방식을 쓰게 된다. 매우 좋은 물 공급 시스템인 것은 맞다. 그러나 경사가 진 곳에서는 물이 골고루 떨어지지 않고 호스라인을 따라 흘러 어느 특정한 부위에는 물이 과습하여 생육이 어렵고 또 다른 곳에서는 건조에 의해 죽게 되는 원인이 있다.

벽화수의 관수시스템은 방근 부직포가 관을 감싸고 있어 물이 한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미어 나오므로 토양에 골고루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겨울관수에 있어서도 관 안의 물이 부직포와 스펀지와 같은 벽화수에 의해 모두 방출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그 해답이다.

식물연구 전문회사의 기술력

벽화수를 개발한 우리꽃연구소는 이미 국내 식물 전문 기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식물의 생리와 생태적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야생화를 개발, 실질적 세계로 열티를 받고 있는 기술력으로 개발되어 일반적인 기술력과는 식물의 입장에서 차별된다. 식물이 행복한 기술력, 플러그(어린 묘)를 꽂기만 하면 식재가 완료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과 식물이 필요 할 때 공급되는 물과 양분 충분한 햇빛을 받아 도시의 빌딩숲을 그린 숲으로 만들면 사람이 행복해 진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력 수직정원 벽화수의 꿈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이름을 가진 야생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개불알풀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우리 자생식물인 개불알풀과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건너온 귀화식물인 큰개불알풀, 선개불알풀, 눈개불알풀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다. 대개의 식물이 그러하듯, 개불알풀 종류들도 토종식물은 귀하지만, 귀화식물은 꽃피는 시기가 길고 번식력이 왕성한 탓에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물 이름이 왜 이처럼 재미있게 불리게 되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기로 하자!

개불알풀의 특징

개불알풀은 현삼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이다. 한국 남부 지방과 일본·중국·타이 등지에 분포한다. 열매 모양이 개의 불알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높이는 5~10cm이고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밑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져 옆으로 자라거나 비스듬히 선다. 잎은 밑쪽에서는 마주나고 위쪽에서는 어긋나며 난상 원형이고 톱니가 있으며, 밑쪽의 것은 짧은 잎자루가 있으나 위쪽의 것에는 없다. 5~6월 연한 자주색의 꽃이 일그러짐에 1개씩 달린다. 가는 꽃대는 잎과 거의 같은 길이이고 화관은 지름이 3~4mm이며 통 부분이 짧다. 수술은 2개이고 암술대는 길이 1mm 정도이다. 꽃받침은 4개로 깊게 갈라지고, 꽃받침조각은 난형으로 끝이 둔하며 빛깔은 녹색이다. 열매는 콩팥 모양의 삭과이며 전면에 부드러운 털이 있다.



두해살이풀의 유용한 생존방식

개불알풀 종류들은 다른 어떤 꽃보다도 봄소식을 빨리 전하는 꽃이다. 이는 바로 두해살이풀이라는 생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해살이풀들은 다른 봄꽃들이 자라기 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많다. 지난해 가을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다가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시도 때도 없이 꽃을 피워대는 편이다. 이미 지난해 싹을 내고 있었으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은 다른 봄꽃보다 빠른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개불알풀을 비롯한 두해살이풀이 살아가는 아주 유용한 생존방식이다. 빠르면 1~2월에도 양지쪽에서 피는 꽃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5~6월에 꽃이 피는 편이다.



개불알풀의 종류

개불알풀이라는 이름이 붙은 꽃도 여러 종류가 있다. 꽃이 연한 자주색이며 크기가 아주 작은 것이 개불알풀인데, 이 꽃은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알려져 있다. 개불알풀은 꽃의 지름이 대략 3~4mm 정도이며 큰개불알풀의 꽃에 비해 크기가 1/3이하로 작다.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자라는 큰개불알풀에 비해, 개불알풀은 개체수도 적은 편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큰개불알풀은 꽃의 지름이 대략 6~8mm 정도이고 '큰'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크지 않은 편이다. 접두사가 붙지 않은 개불알풀은 얼마나 작은 꽃인지 이름으로도 대충 짐작할 만하다. 이외에도 귀화식물이면서 꽃이 작고 똑바로 서서 자라는 선개불알풀, 털이 굉장히 많고 누워서 자라는 눈개불알풀이라는 꽃도 있다.

이름에 대한 논란

개불알풀이라는 이름에 대해 논란이 많은 편이다. 열매가 달린 모습이 개의 음낭을 닮아서 붙여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재미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망측하다고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봄소식을 빨리 전한다는 의미로 '봄까치꽃'이라 고쳐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런데 한자로는 땅에 깔린 비단이라 하여 지금(地錦)이라 하고, 서양에서는 꽃이 새의 눈을 닮았다 하여 Bird's eye라 부르기도 한다.



가장 자연스러운 이름

식물의 이름은 그 식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지어 부르는 것이 좋다. 이름만 들어도 그 식물의 특징을 연상할 수 있는 이름이 가장 좋은 것이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술적인 이름도 무시할 수가 없다. 듣기에 민망스럽다고 인위적으로 고쳐 부르거나 어떤 용도나 인위적인 목적을 개입시켜 불러서는 안 된다. 개불알꽃은 꽃모습이 그렇게 생겼고, 개불알풀은 열매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 그 식물의 특징을 잘 관찰하기만 하면 저절로 식물의 이름이 연상되는 것인데, 이를 북두머리꽃이나 봄까치꽃으로 고쳐 부르더라도 무지 어색하기만 할 뿐이다.



봄소식을 기쁘게 전해 주는 꽃



이 종류들 중에서는 큰개불알꽃이 주변에 가장 많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귀화식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긴 하지만,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꽃이 큰개불알풀이다. 그래서 큰개불알풀의 꽃말도 '기쁜 소식'이다. 봄은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는 계절이다. 다른 꽃에 비해서 꽃이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기쁜 봄소식을 전하기 위해 겨울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꽃을 피웠으니 얼마나 대견스러울까? 따스해지는 봄날 밖으로 나가 큰개불알풀의 꽃에 눈맞춤 한 번 해보는 일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날에는 기분 좋은 기쁜 소식이 전해질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주 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여전히 추운 정원에 짙은 녹색의 잎으로 성장속도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한 자리에 묵묵히 성장하는 수목이다. 우리 땅에서 뿌리내려온 수목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많이 살아왔자 겨우 100살까지 살면서, 그것 갖고 호들갑떨기는'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하찮은 일로 치부해 버릴 듯 싶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별칭을 갖고 가장 오래된 수목의 종류인 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주목의 식물학적 특성

상록 침엽교목으로 서늘한 고산지대에 분포하며 원추형으로 단정하며, 수고는 약 20m, 지름은 2m에 달한다. 가지가 사방으로 많이 퍼지는 형태로서 큰 가지와 원대는 적갈색이며 어린 가지는 녹색이나 2년 후 갈색으로 변하고, 껍질이 얇게 벗겨진다. 잎은 호생(互生: 어긋나기)이며, 옆으로 뻗은 가지에서는 때로 깃처럼 2열로 배열되어 나선상으로 달리고, 모양은 선형, 침형 또는 끝이 뾰족하고 중간쯤부터 피침형(線上: 披針形)을 이룬다. 잎의 끝은 뾰족한 미첨두(微凸頭)이며 넓은 예저(銳底)이며, 길이는 1~3cm, 폭은 2~3mm로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에 황록색 줄인 기공 조선이 있다. 잎은 2~3년 만에 낙화. 엽액(葉腋)에 달리는 꽃은 4월에 개화한다. 수꽃은 갈색으로 6개의 인편으로 싸여 있고 8~10개의 수술과 8개의 수술이 있으며, 암꽃은 녹색으로 달걀 모양이며 1~2개씩 달리며 10개의 인편으로 싸여 있다. 열매는 핵과(核果)로 8~10월에 익으며, 가종피 안의 씨가 엷보이는 것이 다른 식물들과 구별되는 주목 만의 특징이다. 주목의 열매는 맛이 쓰고 독이 있으며, 약으로 쓰인다.

주목의 명칭

주목의 학명은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로서 속명 중 *Taxus*는 그리스어의 활이라는 뜻으로 나무로 활을 만든 유래로 종명인 *cuspidata*는 갑자기 뾰족해진 것을 뜻한다. 영명은 Japanese Yew이며, 주목은 화솔나무, 강원도 적목(赤木), 경기도 경목(慶木), 제주도 노가리나무 또는 적목으로 불렸다.



글 / 사진 이 선 아박사



주목과 비슷한 나무

주목과 비슷하지만 키가 크지 않고, 원줄기가 곧게 서지 않고 밑에서 줄기가 여러 대로 갈라지는 눈주목(*Taxus cuspidata* var. *nana*)이 있고, 원줄기는 한 개이며 원줄기가 비스듬히 자라면서 땅에 닿은 가지에서 뿌리가 내리는 것은 설악 눈주목(*Taxus caespitosa*)이라 하며 설악산 대청봉 근처에서 눈잣나무와 같이 자란다. 또한 주목의 한 변종으로 잎의 나비가 3~4.5mm로 주목보다 넓고 회색이 도는 것은 회솔나무(*Taxus caespitosa* var. *latifolia*)라고 하며 울릉도와 북쪽에서 자란다. 원예종으로 새로 돋은 잎이 황금색을 띠는 것을 황금주목이라고 부른다. 주목과 형태는 비슷한 나무로 잎의 끝이 뾰족하지만 찌르지 않는 상록침엽관목의 개비자나무(*Cephalotaxus koreana*)가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목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된 소백산 주목군락은 비로봉의 정상부 서쪽에 100여 그루의 오래된 주목이 모여 자라며, 줄기가 꼬이고 겹가지는 아래 위로 굴곡을 만들어 신기한 모습이다. 몇 년전 문화재청에서 오랜 생명력을 갖고 살아온 수목을 조사한 결과, 1천살 이상이 라고 추정한 나무로는 강원도 정선의 두위봉 주목(1200~1400살), 강원도 영월의 하송리 은행나무(1000~1300살),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 은행나무(1100살), 충청남도 금산의 행정 은행나무, 강원도 삼척의 도계 긴잎 느티나무, 제주도 표선의 성읍 느티나무, 충북 괴산의 읍내리 은행나무, 충청남도 금산의 보석사 은행나무 등을 각각 1000살로 추정하였다.

주목의 생태적 특성

주목은 생장이 느리고 전정에는 매우 강한 수목으로 잔뿌리는 많은

편이다. 강한 음수의 조정수로 알려져 있다. 여름의 고온 건조한 양지보다는 적습비옥한 반음지가 좋고 적윤지의 토양에 생육이 적정하며, 내공해성은 보통이며, 작은 나무는 이식이 용이하나 근근(根群)이 발달이 나쁘고 직근성(直根性)이므로 큰 나무의 경우에는 이식이 어렵고, 가을에 이식하게 되면 한풍해가 심하다. 내한성 있고 토심이 깊은 곳에서 잘 자라며, 중부나 북부지방에서 잘 자란다. 주목은 5월에 주로 생육하고 초여름 새순이 트기 전에 전정을 한다. 가을 종자를 채취로 겨울동안 노천매장 하여 봄에 파종하는 실생 번식과 6~7월의 당년생 반 숙지의 삽목번식 방법이 있다.

주목의 이용

주목은 목질이 치밀하고 연륜의 경계가 뚜렷하며 수지도(樹脂道)는 없고 탄성(彈性)이 강하며, 뒤틀리지 않고 습에도 강하여 문지르면 광택이 나기 때문에 목재는 주로 연필을 만드는 데 쓰이며 조각재, 고급 가구재, 세공재 뿐만 아니라 문갑, 필현갑, 담배갑, 바둑판, 장기관, 단장, 열레빗 등을 만들었다. 주목이 품위 있는 가구나 기구재로 쓰인 데는 그 빛이 붉어서 목재에는 드문 귀한 재료이기도 하다. 붉은 줄기에서 추출한 액은 임금이 입는 곤룡포와 궁녀들의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주목은 장수하는 나무로서 노인들은 주목단장 즉,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벽사에 힘입어 무병하게 장수한다고 믿어 위안도 받았다.

주목의 조경적 이용

수형이 아름답고 진한 녹색 잎이 백백한 잔가지에 붙어 무성하며, 붉은 줄기와 잘 어울리지며 가을에는 붉은 열매가 달려서 잎과 조화되므로 정원에 풍치용으로 심는다. 중심목이나 생활타리용의 경계식재나 차폐식재용, 토피어리용으로도 사용한다.

독립수 또는 군식으로 이용되며 생장이 느리고 음지에서 도 잘 견디므로 기초식재로도 사용가능하다.





우리드림 레드



우리드림 핑크



우리드림 옐로우



우리드림 화이트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우리꽃 연구소가 개발 육성한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는 자랑스럽게도 일본의 정원과 유럽, 호주, 미국의 정원까지 우리꽃연구소란 개발자의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소비자와의 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시작된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전화. 031.634.7990



우리드림 오렌지



팅커벨 레드



팅커벨 핑크



팅커벨 퍼플

실내정원의 CRAFT

달걀 판과 달걀 껍질로 만드는 벽걸이 가드닝

생활 쓰레기로 늘 나오는 달걀 판과 달걀 껍질은 은근히 귀찮은 존재이다. 특히 달걀 판은 한 번 쓰는 포장 용기로는 아까운 생각도 든다. 이것을 활용하면 벽에 걸 수 있는 벽걸이 미니 화분과 화분 용기로 만들 수 있다.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고, 관리가 용이한 다육식물을 이용해서 벽걸이 가든을 만들어 보자.



달걀 판을 색칠한다.



달걀 껍질은 한쪽으로부터 구멍을 내고, 내용물을 사용하고 난 후, 세척하고 충분히 말려서 아크릴물감으로 칠한다.



달걀 판에 벽에 걸 수 있게 구멍을 낸다.



색칠한 달걀 껍질을 글루건으로 달걀 판에 고정시킨다.



붙인 달걀 껍질에 1/3 정도 토양을 티스푼을 이용해 넣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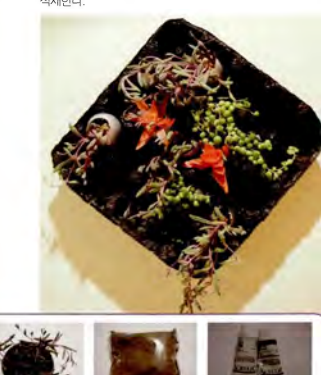
화재의 부리가 상하지 않게 달걀 껍질에 넣고 티스푼을 이용해 식재한다.



루비 옥걸이와 녹영도 부리가 상하지 않게 티스푼을 이용해 식재한다.



식재 후 붓으로 흙을 덮어준다.



Material



우정아 /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달걀껍질



달걀판



화재



녹영



루비옥걸이



사질의 토양



아크릴물감(화이트, 블랙)

정원맡기지 말고 직접 가꾸어보세요! 내손으로 가꾸는 정원, 배움으로부터 시작!

» 교육과정안내

그린아카데미 : 1학기: 4~6월, 2학기: 9~11월(주 1회 학기당 10~12회)

1년 과정과 학기 과정 구분(과목별 현장 전문교수님들로 구성, 인문학 이론과 실습 추구) 실용의 정원과 원예적 가치를 이해하고 도시인 대상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 생활 원예, 생활 정원에 활용, 특히 넓은 정원과 실내 생산 농정에 경험하고 체험, 실습시스템

국화분재 전문반/3~11월(월 2회, 약 15~18회, 합평 나비축제, 국화대전의 대부 이순영 소장 직접강의)

국화분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손수 모양잡기, 가지치기, 거름 주기, 유인하기, 분에 얹히고 예술적 표현하기 등의 과정을 학습하고 작품의 발표 및 전시 등의 기회를 갖습니다.

정원 시공 전문반/ 비정기 개설(약 5~10회, 소수정예 강좌, 선착순 예약 대기 제 시행)

우리씨드그룹의 박공영박사의 직접프로그램으로 정원, 조경, 설계 시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강좌, 아늑화의 특성과 정원의 이용, 정원디자인 현장 강의-단기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 예약 대기제란 미리 신청, 대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환경이건만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운영규칙**

주말특강반/3월~11월(격주 토요일)

* 상반기 예정: 정원 공간의 이해, 구근의 모든 것, 배란다정원, 키친가든(채소정원), 정원식물의 종류, 정원의 모든 것, 가지치기의 모든 것, 을지정원, 여름정원, 수생식물과 연못

특별프로그램 / 4~11월, 사진 예약(10인 이상 단체 예약도 가능)

자연교감프로그램(정원안내+체험), 야생화 분경 체험, 씨앗친구와 놀기, 꽃차 소믈리에, 꽃의 향기와 맛(비빔밥체험), 야생화 반식, 나눔의 체험 등 계절별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강의 공지 및 후기 : <http://gardenjoa777.blog.me>

강의 문의 및 접수 : Tel: 031-712-7009

Fax: 031-634-7991

교육담당자 mail: gardenjoa777@naver.com

우리씨드 교육만의 특징

01.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02. 검증된 교수진
03. 이론수업과 실습현장의 균형
04. 풍부한 교육자원과 다양한 혜택
05. 정원문화의 소통의 장

실내식물 사람을 살린다 저자 손기철

가정과 사무실에 실내식물 기르기로 건강 열풍을 몰고 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최근 들어 실내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대책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다. 왜냐하면 도시인은 대부분 밀폐된 아파트나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실내에 있는 가구나 설비, 자재들이 천연물이 아니고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오염물질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실내에 두면 건강이 완화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가정이나 사무실에 실내식물을 두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식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실내식물로 새집증후군·발암증후군·폐지, 실내공기정화, 실내 오염물질 제거, 전자파 차단, 온열환경, 첨단 기능성 실내 디자인은 물론 뇌졸중, 정신분열증(조현병), 지적장애, 치매, 노인, 아동, 청소년에 적용한 원예치료 등의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식물-인간-환경의 관계의 폭을 보다 넓히고, 특별히 원예활동의 신체 건강유지와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더불어 원예치료 분야의 최근 논문을 첨가함으로써 관심있는 독자들이 보다 더 깊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분야에서 연구된 내용은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 앞으로 더 중요시되고 각광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을 생각하는 원예치료와 기능성 실내식물 15가지 소개

이 책은 출간 전부터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실내식물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보건환경과학과 손기철 교수의 연구결과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원예치료》라는 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하면서 식물로 질병을 치유하는 원예치료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시킨 바 있다. 요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전부 다양한 화학적첨가제와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다. 이러한 합성화학 제품에서는 휘발성 유기물질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실내공기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 배출원은 건축자재, 카펫, 집착제, 청소용품, 방향제, 화장품, 흡연 등이며, 포름알데히드, 벤젠, 클로로포름 등을 포함하여 200~500가지 이상의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휘발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실내식물이 최적이다. 실내식물은 또 '공기 비타민'이라고 일컫는 음이온을 기공을 통해서 생성시킨다. 음이온은 폭포나 계곡의 물가, 분수 등 물분자가 격렬히 운동하는 곳과 삼림 등 식물의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왕성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식물 중에서 음이온 발생률을 조사해 본 결과, 산세베리아가 다른 식물에 비해 약 30배 이상 음이온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세베리아 외에도 스파티필름, 관음죽, 팔손이도 다른 실내식물에 비해 음이온이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아이온이 음이온의 약 1.5배에 달하는 컴퓨터방이나 전자레인징, 냉장고 등이 있는 부엌에 이런 식물을 두면 좋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뇌졸중, 정신분열증(조현병), 지적장애, 치매에 적용한 원예치료 등의 연구결과도 들어 있다. 원예치료는 식물을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써서 움직이는 등 많은 감각을 활용한다. 또한 실내공기정화, 실내 온열환경이나 실내공기질 개선과 같이 기능성을 지닌 식물 15가지를 선정하였으며, 더불어 각 식물로 가능한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화초 기르기를 시작하다 저자 전영은

"식물 초보자를 위한 꼼꼼한 기초 정보!"

나에게 꼭 맞는 테마별 화초 정보가 한가득!

플로리스트가 추천하는 봄·여름·가을·겨울 화초 다양하게 연출하는 플랜테리어 소개까지!"

화초 기르기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화초 지식을 소개한다. 또한 테마별로 식물 초보자를 위한 화초 / 돈과 행운을 부르는 식물 / 선물하기 좋은 의미 있는 식물 / 카페에 잘 어울리는 식물 / 특별한 나무이끼 / 공기정화에 좋은 친환경 식물 / 허브 식물들에 대해 알려준다. 이 밖에도 계절별로 키울 수 있는 화초 이야기를 정보 팁과 담았으며 화초를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그동안 화초 기르기에 늘 실패했다면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관리 노하우까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화초 기르기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화초 지식을 소개한다. 또한 테마별로 식물 초보자를 위한 화초 / 돈과 행운을 부르는 식물 / 선물하기 좋은 의미 있는 식물 / 카페에 잘 어울리는 식물 / 특별한 나무이끼 / 공기정화에 좋은 친환경 식물 / 허브 식물들에 대해 알려준다. 이 밖에도 계절별로 키울 수 있는 화초 이야기를 정보 팁과 담았으며 화초를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화초를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화초 재배에 필요한 기본 지식은 물론, 테마별로 알아보는 50가지 화초의 상세 정보까지 화초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식물과 접하여 살고 있다. 식물 키우는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취미로서 식물 키우기는 매마른 일상에 기쁨을 안겨준다.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잎을 한 잎 두 잎 내밀거나 오묘한 빛깔로 꽃까지 피워냈을 때는 우리에게 적지 않게 감동을 받는다. 이러한 식물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여금 정서적 안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식물 키우기의 즐거움에 첫발을 디딘 사람들이라면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 기획된 책이다. 식물에게 필요한 물주기, 빛의 세기, 토양분별, 분갈이 등 식물 초보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고, 화초를 선물할 때는 어떤 의미의 식물을 선택하면 좋을지, 테마별 분류와 함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식물,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링과 팁을 소개한다. 식물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식물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식물들 공간에 아름답게 배치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활용법도 소개했다. 단순히 식물 키우는 정보보다는 생활 속에서 식물과 함께 느끼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될 것이다.

해외 정원 여행으로의 초대

세계 top 10 정원 여행지 소개

1. CHÂTEAU DE VERSAILLES

Versailles, France www.chateauversailles.fr

The famous French landscape designer André Le Nôtre laid out these gardens southwest of Paris in the 17th century at the behest of Louis XIV.

프랑스의 Landscape designer, André Le Nôtre가 17세기 루이 14세 통치하에 하명 받아 베르사이 유 궁의 250 에이커 정원을 가장 우아하게 만든 정원의 최대 찬사와 역사를 사랑하는 정원



2. ROYAL BOTANIC GARDENS

At Kew, Richmond, Surrey, England www.kew.org

Set amid 132 hectares (326 acres) of landscaped grounds, greenhouses are a popular feature of the gardens.

런던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326에이커의 면적에 동 양의 유리 온실이 특징을 이루며, 정원의 다양함과 유명식물의 역사적 보존식물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명소이다. 특히 기후에 따른 구본의 식물 분류로도 유명하며 토양 가족이 점심 식사를 즐기던 Queen Charlotte's Cottage 정원과 점심시간 단소를 즐기던 Orangery 매우 유명하다.



3. POWERSCOURT GARDENS

Enniskerry, County Wicklow, Ireland http://www.powerscourt.ie/

The gardens and grand Palladian villa at Powerscourt, south of Dublin, were designed in the 18th century and punctuate 19 hectares (47 acres) of formal walled gardens and shaded ponds.

18세기 세워진 47 에이커의 면적에 formal 정원과 연못으로 꾸며진, 아일랜드 남쪽 더블린, Powerscourt의 정원과 웅장한 파 라디안 빌라 Palladian villa.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정원을 모방하여 잔디, 폭포, 공원, Pavilion 정원과 길게 늘어선 나무들의 행렬과 주변 1,000에이커와의 연계된 아름다운 풍경은 Powerscourt Garden의 방문으로도 연장선의 자연풍광을 누릴 것이며 특히, Pepper Pot Tower가 위치한 이탈리아 정원과 일본식 정원도 인기 가 높다.



4. BUTCHART GARDENS

Vancouver Island, British Columbia www.butchartgardens.com

The Butchart Gardens are a dazzling example of a successful reclamation project. The land, used for years by Portland Cement, by 1904 had exhausted its value as a quarry.

약 55 에이커의 면적에 700 종의 식물이 4세대의 전통을 이어오며 식재 화단의 기술과 디자인이 뛰어난 정원으로 탄광 불모지를 최고의 정원 관광지로 바꾼 장소로 정원 전문가와 반복적 방문자의 수가 늘 증가하고 있다.

5. VILLA D'ESTE

Tivoli, Italy

A Renaissance cardinal decided to make life in Tivoli bearable by turning a dilapidated Benedictine monastery into a lovely villa, the Villa d'Este.

르네상스 시의 최고봉을 이룬 물을 이용한 정원의 극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이태리 정원에 건축물과 미술, 역사가 융합된 UNESCO문화 유산으로 지정. 분수의 최고봉 수백 개의 분수가 겹쳐질 늘어진 정원의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www.lermeden.com

겨울 온천의 최고 명소!!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할인권을 제공
- 꽃세증정

문의전화

Tel. 031-712-700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lermeden.com



월간<가든인> 정기구독이벤트

40% 할인권

[기간] 2015. 2. 1 ~ 2015. 2. 28

Gardenin

정원장 만들기를 위한 1년 12월 12회 정기구독이벤트
가든인 4월 12월 12회 정기구독이벤트
가든인 4월 12월 12회 정기구독이벤트
가든인 4월 12월 12회 정기구독이벤트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점구입처 : 교보문고(10개지소), 영광도서, 남포문고(부산), 독산문고(수원)
인터넷구입 : 교보문고 알라딘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십시오.

사원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구독

16.6% OFF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입금 후 반드시 문자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 가능합니다.)
문의 : 031-712-7009

Gardenin

Gardenin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월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한 정기구독을 위해 신청한 주소로 가드너에게서 발송됩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55-0030-2359-03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기간] 2015. 2. 1 ~ 2015. 2. 28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출으로 판매 및 영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2월입니다.
1년중 가장 짧고 밝은 달.
그래서인지 늘 아쉬움이 남는 달.
아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을 준비하겠습니다.

발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 이학
고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전문위원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 대표
김귀순 (사)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왕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
윤정식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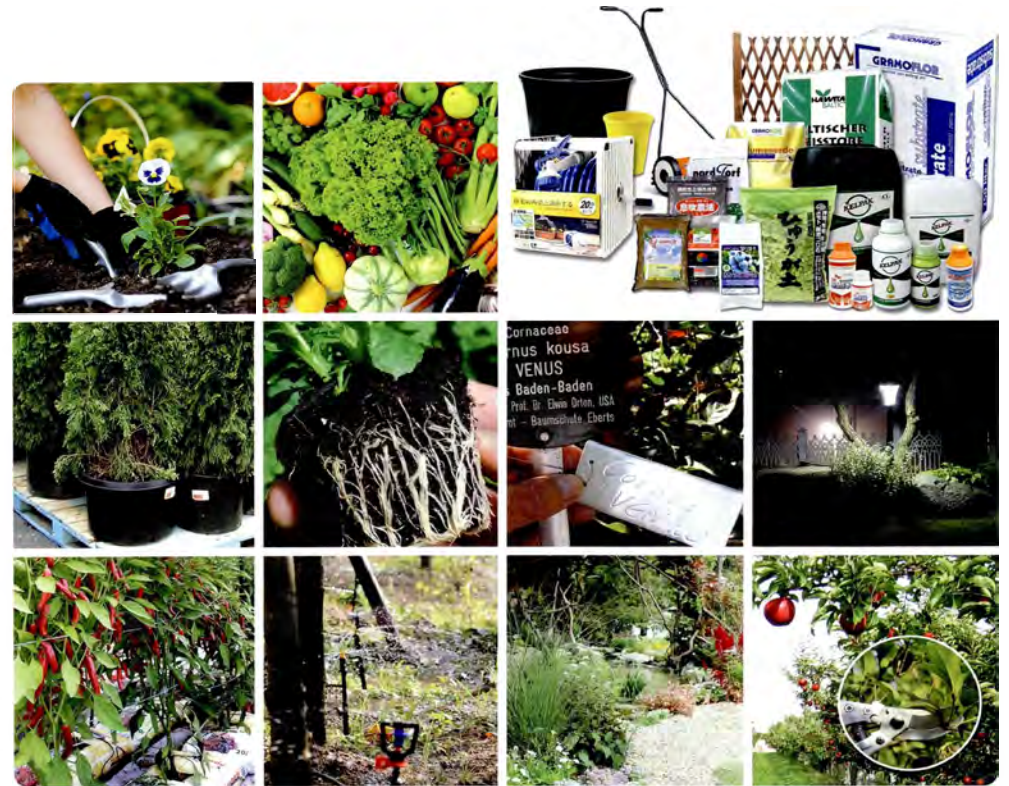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391

Gardenin

(주)한국원예자재 전시/판매장

“모든 가드닝/원예자재를 한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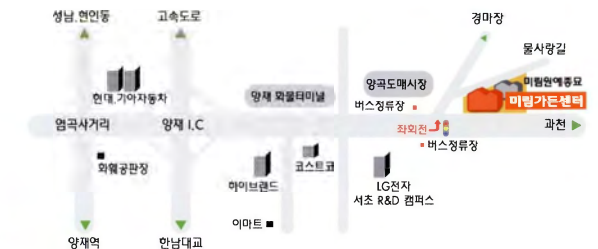
미림가든센터



(주)미림가든센터 오시는 길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미림가든센터
e shop 조이가든
검색창에 '조이가든' 검색



Nice to  you!

가든엔씨앗

정원용 고급 종자

선 100



우리꽃연구소
URISEED INSTITUTE

467-872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gardenjoa.com (100선 사진 지)